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교육을 거부하거나 제한한다면 그것은 분명 차별이다. 또한 형식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여 상이한 취급을 하지는 않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차별이다. 많은 장애대학생들이 사회가 강요한 잣대에 익숙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학을 다니고 있다.

장애대학생들은 비장애대학생들과 동등한 대가를 지불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학의 헌법적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고민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 오히려 입학울 허락한 배려를 과시하며 암묵적인 침묵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장애대학생 후배에 대한 입학울 볼모로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하기도 한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무장애대학 만들기

인권정보자료실 Mdl.3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는 장애인·노인·어린이·임산부 등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물과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편의시설의 개선과 설치를 촉구하며 감시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306호 (우:110-320) 전화 : 02-765-6835 팩스 : 02-765-1385  
홈페이지 : www.accessact.org 이메일 : accessk@nownuri.net

정가 : 10,000원

Project of Barrier Free University

인권정보자료실  
Mdl.3

# 무장애대학 만들기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실시 대학교  
장애인 차별도 인식 조사 및 교육환경 실태 조사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



# 무장애대학 만들기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실시대학교  
장애인 차별도 인식조사 및 교육환경 실태조사

연구

김형수 / 한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2학기

김형욱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간사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 차 례

1. 머리말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대표 이계준 -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는 이제부터입니다	5
2. 취지 / 사무국장 전정옥 - 무장애 대학교 운동은 인권회복운동이다	6
3. 무장애대학교 만들기 진행 경과 및 활동 / 간사 김형욱	10
4. 차별도 인식조사와 교육환경 실태조사	19
I. 장애인 대학생 차별도 인식조사와 분석	21
II. 무장애대학교 만들기 교육환경 조사결과 및 분석	64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의 개선	215
I.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의 다시 보기	217
II. 장애인 교육권의 법률적인 근거와 문제점	225
1) 장애인복지법과 편의증진법을 중심으로/ 연구실장 배음호	226
2) 장애인 특별전형에 대한 법 검토와 대안/ 연구원 김형수	235
3) 입학거부와 특수교육진흥법	238
III. 해외 사례 : 미국 버클리 대학의 장애 학생 교육환경	241
IV. 국내 사례 : 무장애대학교 만들기에 참여하면서/ 류명숙	249
V. 참고문헌	252
VI. 설문지 1 : 장애인차별도 인식조사 설문지	254
VII. 설문지 2 : 각 대학별 교육환경 실태조사지	262
6. 사진으로 본 대학의 편의시설	283
I. 국내	
II. 해외 (독일/ 영국)	

## 무장애대학교 만들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이계준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대표

우리는 누구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들의 교육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같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교육은 늘 뒷전이었고, 장애인의 교육은 특수교육이 전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특수교육은 물론, 의무교육과 고등교육, 그리고 대학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이기도 합니다.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는 이러한 권리를 권리의 주체자인 장애인과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 찾아가기 위한 운동입니다. 또한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는 교육권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과 간접적인 차별을 제거하고 평등한 교육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는 교육권 운동인 동시에 인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이 운동에 관심을 가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 운동의 현장에 뛰어 들어서 설문조사도 하고 실태조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땀과 노력의 결실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실태조사와 결과 발표에 있지 않습니다.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는 우리의 대학들이 얼마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외면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편의연대는 이제 이 결과들을 가지고 전국의 대학들을 무장애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평등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대학 생활을 하는 그 날이 오기까지 편의연대의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에 함께 참여해 준 20개 대학의 학생들과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무장애 대학교 운동은 인권회복 운동이다

전정옥 · 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 사무국장

## 1. 우리는 왜 무장애 대학교 운동을 하는가?

건축물, 교통시설, 교통수단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이다. 건축물 등에 대한 접근과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차별이며 불평등이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건축물, 자유롭게 사용하는 교통시설, 자유롭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비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접근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거나 접근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한 차별이며,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분명한 것은 장애인이 건축물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것 역시 명백한 차별이며 불평등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역시 직접적인 차별 못지 않은 중대한 차별인 것이다.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는 교육환경에서의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을 제거하자는 운동이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활동에서도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차별과 불평등을 당하고 있지만, 교육환경에서의 불평등과 차별 역시 매우 심각하다. 실제로 수많은 장애아동들이 조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장애인들이 의무교육조차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95년도부터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조차도 장애인의 접근권과 교육권을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학 내에서 만이라도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동등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절실해지고 있다. 더욱이 수많은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한 불편을 개인의 어려움으로만 돌리고 있으며, 이것은 장애인의 인권과 접근권을 침해한 것이며 장애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과 불평등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분명히 이 문제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이다.

물론 아직도 수많은 장애인들이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고등교육인 대학교의 편의시설과 교육환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사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조차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장애를 가진 대학생을 차별하고 불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일 수 있다. 특히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조차 이러한 문제에 무관심하며 장애인 개개인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1997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1998년 이후로 신축되거나 개축, 증축되는 학교시설은 편의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대다수의 대학의 건물들과 시설들은 편의시설 없이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몇 십 년은 특별한 개축이나 증축이 없이 사용될 것이다. 결국 대다수의 학교 시설들이 편의증진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현재처럼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경우 계속해서 건축물 등에 접근을 하지 못한 채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 스스로, 그리고 대학생 스스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대학교의 접근권 확보 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

## 2. 무장애 대학교 운동은 무엇인가?

1)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 운동(이하 무장애 대학교 운동)은 차별과 불평등을 금지하며 평등하게 교육받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다.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용하는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학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얻는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불평등이다. 학교와 사회는 당연히 장애인도 동등하게 학교의 모든 시설을 이용하고,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다른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 생활을 하도록 방치하거나, 장애를 가진 학생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 역시 명백한 차별이며 불평등이다.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도 다른 모든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공부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며, 학교 생활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무장애 대학교 운동은 바로 이러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권리가 빼앗기고 있는 것이 차별과 불평등임을 인식시키고,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함으로써, 평등하고 동등하게 교육받고 학교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운동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인권회복운동이다.

2) 무장애 대학교 운동은 접근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다. 모든 국민은 장애유무, 연령, 성별, 종교 등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교통시설, 교통수단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이것이 바로 접근권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또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동등하게 얻을 수 없다면 이것은 접근권이라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무장애 대학교 운동은 바로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접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접근권운동이다.



3) 무장애 대학교 운동은 무장애 공간(Barrier Free Zone)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다. 무장애 공간이란 장애물이 없는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장애 공간이란 우리가 사는 공간 안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를 느끼지 않고, 활동과 참여에 제약을 받지 않는 공간을 의미한다. 건축 환경, 교통환경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만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의 도시 환경, 교육환경, 근무환경, 주거환경 속에서 비록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안전하며, 편리하게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바로 무장애 공간 만들기 운동이다. 그리고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는 바로 그러한 무장애 공간을 대표적인 교육환경인 대학교 내에서 실현해 보고자 하는 운동인 것이다.

4) 무장애 대학교 운동은 교육권의 주체인 학생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이다.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는 편의연대가 앞장선다고 해서, 시민단체의 여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편의연대는 다만, 무장애 공간화를 대학 내에서 실현해야 하는 당위성을 알리고 그 논의를 이끌어낼 뿐이다. 대학 내에서 실질적인 무장애 공간을 만들고, 무장애 대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은 오로지 학생 스스로의 힘과 운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무장애 대학교의 주체도 학생이며, 주인도 학생이고, 무장애 대학교를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도 바로 학생들이다. 따라서 무장애 대학교 운동은 편의연대의 운동이 아니라 모든 차별 받는 학생들의 운동인 것이다.

### 3. 앞으로의 과제

무장애 대학교 운동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는 현재 대학 내에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차별과 불평등을 당하고 있으며, 현재 접근권을 얼마나 침해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진정한 무장애 대학교 운동은 이러한 기초 작업을 기반으로 실제로 각 대학교 내에서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공부를 하고, 학교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일을 구분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과 학교당국과 협의를 해야 하는 일들을 구분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

무장애 대학교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실천과 운동의 중심에 학생 스스로가 서야 하며,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무장애 대학교 운동은 단순히 이념적이고 이론적인 운동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운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사로 하나라도 만들고, 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컴퓨터 한 대라도 설치가 되는 운동이어야 한다.

무장애 대학교 운동은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운동은 아니다. 무장애 대학교 운동은 인식 개선의 운동이 동시에 철저히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작은 변화가 일어나

기 위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작지만 끊임없는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면, 무장애 대학교 운동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이 대학 내에서도 장애를 느끼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 무장애 대학교가 지금의 우리에게 꿈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며 실천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 될 것이다.



##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 진행 경과 및 활동

김형욱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간사

### 1.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를 시작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한지도 95년 이후 벌써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특별전형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대학을 진학하였고 그리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대학진학을 꿈꾸고 있다. 특별전형을 통해 장애인들에게도 고등교육의 문이 열렸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7년째를 맞이하는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진학을 한 장애인들 중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대학은 꿈의 실현을 위해 훌륭한 배움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학생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리고 왜 자신 있게 대학을 추천하지 못할까?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도 부푼 꿈을 갖고 들어간 대학에서 오히려 날개가 꺾인 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

진리와 자유를 배우고 실천하는 대학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고 암묵적인 차별을 받으며 지내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학교 다니기를 강요할 수 있을까?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대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요소를 찾아내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다. 또한 침해받은 인권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되찾고자 하는 운동이다.

무장애 대학 만들기는 조사나 통계를 내기 위한 활동이 아닌 말 그대로 무장애 대학교를 만들어 가는 운동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그리고 보다 중증의 장애인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대학생활을 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모든 학교가 장애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학을 다니며 진리를 탐구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는 꿈을 품고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를 시작했다.

### 2. 목표와 원칙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대학교의 현실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졌다. 95년 특별전형이 맨 처음 시작되었을 때와 지금의 학교 환경은 많이 변화된 것이

사실이다. 낙후된 학교 건물들은 새로 지어지고 대학 종합 평가를 실시하면서 편의시설을 갖춘 학교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 정확히 조사된 자료가 없어 편의시설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된 편의시설은 실제로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따위의 대학의 특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우선 목표로 선정하여 각 학교의 학생들을 조사단으로 모집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함께 차별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인식과 욕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별히 차별도 설문조사는 실제로 대학생활을 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는 것이어서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리고 편의시설 실태조사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각 학교와 연대하여 모든 대학을 무장애 대학교로 변화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이 모든 활동은 각 개별 학교의 학생들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철저히 교육을 받은 조사단을 구성하여 단기간 안에 정확히 조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의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은 무장애대학교 만들기는 무엇보다 대학생의 권리를 찾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누가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스스로 움직이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누구보다 각 대학의 문제를 가장 정확히 아는 것도 모두 각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이 조사를 위한 활동이 아니고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각 대학교의 학생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물론 짧은 시간 안에 실시되어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고쳐야 할 문제점도 발견되었지만 이런 원칙을 지키며 참가한 학생들이 운동의 주체가 되어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3. 진행과정

5월초 김형수 연구원과 함께 5월 8일 1차 연구모임을 처음으로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처음 서울지역 17개 대학, 경기지역 6개 대학, 충청지역 2개 대학, 호남지역 1개 대학, 영남지역 2개 대학 등 전국 29개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교를 조사대상으로 계획하였다. 이에 각 대학별 장애관련 학과 및 동아리를 중심으로 공문과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활동을 제안하였다. 제안 과정에서 몇 개 대학이 개별적인 사정에 의하여 동참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계획했던 학교 외에 서울대학교와 대전대학, 전주대학이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에 추가로 동참하게 되어 서울지역 14개 대학, 경기지역 2개 대학, 충청지역 1개 대학, 전라지역 2개 대학, 경상지역 1개 대학 등 총 20개 대학이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표1 : 각 지역별 무장애대학 조사 대학교>

지역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대학	건국대,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삼육대, 서강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장신대, 중앙대, 한양대	카톨릭대, 대전대	공주대	우석대, 전주대	대구대
대학수	14개	2개	1개	2개	1개
총 수	20개 대학				

① 대학별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각 대학별 관련 학과 및 동아리에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를 설명하고 제안을 하면서 상당부분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다. 계획했던 모든 대학들이 참가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각 대학들의 개별적인 사정과 어려움을 이유로 동참할 수 없었다. 또한 열의는 가지고 시작했다가 힘들어 중간에 포기한 학교들도 있었다. 학생들이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막상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는데 대해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이와는 반대로 원래 계획에는 없던 대전대학교와 전주대학교는 학생들 스스로 참가의사를 밝혀와서 진행 중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6월부터 계획했던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는 7월 14일 건국대에서의 설문지 및 실태조사 교육을 시작으로 각 대학별로 진행되었다. 진행 중에도 방학이 시작되면서 귀향을 하거나 방중 활동 등의 개인 적인 바쁜 일정들로 인해 실제로 움직이며 활동해야 할 학생들이 없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학생들이 열성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② 대학별 실무자 간담회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의 주체는 대학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를 원했다. 이에 각 대학별로 적어도 한번 이상의 만남을 가지며 자체 간담회 및 실태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달 1회 이상의 각 대학별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대학의 상황 및 개별 대학들이 가진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하고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8회 이상의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그때그때 학교의 변화되는 상황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각 대학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안들을 같이 찾아 갈 수 있었다.

③ 분석 및 연구

건국대를 필두로 시작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는 9월부터 수집하여 분석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0월 13일로 공식적인 마감을 했다. 이후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을 연구분석 날로 잡고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사진 정리 및 조사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들, 학교의 반응 등을 이야기하며 함께 대안을 생각하고 만들어 가는 시간을 가졌다. 분석작업을 하면서도 뒤늦게 참여한 학교들은 계속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11월까지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갔다.

④ 무장애대학교 만들기 전체 간담회

10월 26일,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의 그 첫 번째 시작을 알리며 한 해 동안 진행되어온 결과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 전체 간담회”를 갖게 되었다. 26일과 27일, 1박2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13개 대학, 37명의 학생들이 모여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서울과 전주, 공주, 대구 등의 각지에서 수업과 시험을 마다하고 모인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관심 있는 사람들의 첫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간담회였다.

전체 간담회를 통해 몇 가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야기되어졌다.

우선, 첫 번째로 학교자체의 위치 문제, 즉 대부분의 학교들이 산을 깎아 세워지면서 지형상의 문제로 생긴 급경사에 대한 문제였다. 이는 고질적이면서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여서 많은 연구와 시급한 대안마련이 요구되어졌다.

두 번째 문제는 학교의 형식적인 행정과 편의시설 설치였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서비스는 기대하기도 힘들뿐더러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있다고 말은 하지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편의시설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사가 급해 혼자서는 올라갈 수 없는 경사로, 일반화장실에 장애인 마크만 붙어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 손잡이를 설치하긴 했지만 잘 못 설치하여 오히려 이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화장실, 건물과 건물 사이, 혹은 건물내부에서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건물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건물을 이용할 수는 없거나 반대로 내부시설은 잘 되어있으나 밖에서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건물간의 이동이 어렵거나 이동 동선이 너무 길다는 것 등의 많은 문제점들은 학교의 보여주기 식의 행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실제로 교육부에 보고되는 편의시설 설치율만을 높이기 위한 안일한 조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는 대부분 학교 건물이 오래되었다는 점이다. 건물 자체가 사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을 정도로 오래되고 낡은 학교는 그 만큼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편의시설을 갖추기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9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편의증진법에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편의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물리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대안 뿐 아니라 정책적인 대안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졌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가장 절실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모았던 것은 서로의 인식 문제였다. 학교의 행정편의주의 적인 자세와 비장애학생들의 인식부족, 장애학생들의 무관심, 그리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간의 인식차이가 현실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무장애 대학교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있어서도 가장 먼저 풀는 어려움이였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은 외면한 채 경증장애인만 입학시키는 불합리한 입학제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 전체 간담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모든 모임을 끝내고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게 되었다.

<표2 : 각 대학의 무장애 대학교 활동 진행과정>

날짜	제목	장소	내용
5월	8	1차연구모임	편의연대 사업설명, 연구방법 논의
	10	서울대 손말사랑 자체 간담회	서울대 사업설명 및 특별전형의 이해
	24	2차연구모임	편의연대 설문조사 문항개발, 실태조사방향설정
	29	3차연구모임	편의연대 설문조사 문항개발
	31	4차연구모임	편의연대 설문조사 문항개발, 자료조사
6월	14	5차연구모임	편의연대 설문조사 문항개발, 수정
	16	서울대 실무자 모임	대학로 사업진행 방향 및 일정
	18	6차연구모임	편의연대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개발
	21	설문문항감수	이화여대 설문지문항 감사
	23	우석대 간담회	우석대학교 사업설명 및 특별전형의 이해
	26	1차실무자간담회	편의연대 각 대학 실무자 간담회
7월	10	2차실무자간담회	편의연대 설문지, 체크리스트 배부
	14	건국대 간담회, 교육	건국대 사업설명, 설문지와 체크리스트교육
	18	우석대 교육	우석대 설문지, 체크리스트 교육
	24	서울대 교육	서울대 설문지, 체크리스트 교육
	25	동국대 간담회, 교육	동국대 사업설명, 설문지와 체크리스트교육
	27	3차실무자간담회	편의연대 진행사항 점검
8월	9	이대 간담회, 교육	이화여대 사업설명, 설문지와 체크리스트교육
	10	고려대 간담회, 교육	고려대 사업설명, 설문지와 체크리스트교육
	16	대진대 간담회	편의연대 사업설명
	21	4차실무자간담회	편의연대 진행사항 점검
	23	대진대 간담회, 교육	편의연대 1차 교육
	30	장신대 간담회	장신대 다솜나눔에 사업설명 및 제안 (사정상 진행이 어렵다고 통보)
31	카톨릭대 간담회, 교육	카톨릭대 사업설명, 설문지와 체크리스트교육	
	한양대 간담회 교육	한양대 사업설명, 설문지와 체크리스트교육	

날짜	제목	장소	내용
9월	4	5차실무자간담회	편의연대 진행사항 점검
	5	강남대 간담회	강남대 사업설명 및 제안 (사정상 진행이 어렵다고 통보)
	7	대진대 실무자교육	대진대 설문지와 체크리스트교육
	8	실태조사 연구, 분석	편의연대 실태조사 분석 및 토의
	12	이대 조사표 분석	편의연대 실태조사 분석 및 토의
	14	전주대 간담회, 교육	전주대 사업설명, 설문지와 체크리스트교육
		단국대 간담회, 교육	편의연대 사업설명, 설문지와 체크리스트교육
	15	실태조사 연구, 분석	편의연대 실태조사 분석 및 토의
	18	6차실무자간담회	편의연대 진행사항 점검
	19	고려대 조사표 분석	편의연대 실태조사 분석 및 토의
	22	실태조사 연구, 분석	편의연대 실태조사 분석 및 토의
	25	7차실무자간담회	편의연대 진행사항 점검
10월	7	공주대 간담회, 교육	공주대 사업설명, 설문지와 체크리스트교육
	9	8차실무자간담회	편의연대 진행사항 점검
	11	장신대 간담회, 교육	장신대 학생회와 사업설명, 설문지와 체크리스트 교육
	12	명지대 간담회	명지대 사업설명 및 제안
	17	대구대 간담회, 교육	대구대 사업설명, 설문지와 체크리스트 교육
	18	명지대 간담회, 교육	명지대 설문지와 체크리스트 교육
26-27	무장애대학만들기 전체 간담회	국제청소년센터 무장애대학만들기 사업보고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 4. 무장애대학 만들기의 첫해를 마무리하며

5월부터 진행해온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의 일차적인 마무리를 지으며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많은 시간을 들여 반복된 고민과 토론을 통해 차별도 조사 설문지와 실태조사 체크리스트를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지체장애인에 치우쳤다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설문지들이 지체장애 쪽에 치우쳐진 것을 감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지와 체크리스트를 받아보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의견들이었다. 이로 인해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편의시설이 눈으로 확인되는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편중되어있어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고민의 근거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보습득이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보습득에 가장 소외되어있는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들의 어려운 점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둘째, 설문문항과 체크리스트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설문의 기본 원칙을 일대일 면담 설문으로 하였으나 질문이 너무 어려워 질문하기가 곤란했었다고 한다. 실제로 200부의 설문회수를 목표로 하였으나 이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너무 어려워 짧은 시간, 한번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서너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렵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결코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 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에는 우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였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열성을 가지고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에 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열성 뿐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면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누구보다 문제의 절실함과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당사자인 학생들이 아닌가? 하지만 항상 관심만 있을 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미비하다. 문제의 중심에서 기보다는 주변에서 구경만 하고 싶어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변화되겠는가?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운동이 일회적인 사업이 아닌 꾸준한 운동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주인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대학입학시 장애인들에게 행해지는 입학거부는 아직도 일어나고 있으며 교육권을 보장해주고 실현해 주어야 하는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생은 그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만 학교나 정부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이며 이런 현실을 딛고 이제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어디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는가? 처음 시작이라 아직 미흡한 점도 많고 원하는 것들도 많을 것이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끊임없이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일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도 했다. 우리는 벌써 반은 완성을 해놓은 것이다. 이제 나머지 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으며 이는 무장애 대학교를 만드느냐, 아니면 장애를 개인의 문제와 책임으로 치부하며 장애대학을 계속 다니느냐의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목적은 확실해졌다. 또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고민을 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다니는 것만으로도 힘에 겨운 학교가 아니라 정말 진리를 탐구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다닐 맛이 나는 학교,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겁게 공부하며 놀 수 있는 학교, 진정한 무장애 대학교를 위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꾸준한 행동과 전진이 필요할 때이다.

이제 시작된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 운동은 보고된 자료들과 실태를 토대로 새로운 대안을 찾는데 노력할 것이다.

몇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듯이 각 학교의 상황은 다양하고 동시에 각 학교만이 가진 특성들이 있다. 이를 잘 반영하여 각 학교별로 우선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찾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도 언급했듯이 법률과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여 학교가 도움의 차원에서 행하는 일시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대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는 학생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며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며 행동하게 될 것이다.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

## 차별도 인식조사와 교육환경 실태조사

I. 장애인 대학생 차별도 인식조사와 분석

II. 무장애대학교 만들기 교육환경 조사결과 및 분석

# 1. 장애인 대학생 차별도 인식 조사와 분석

## 1. 조사 배경 및 연구

1994년 말 서강대, 대구대를 필두로 장애인 특별 전형이 발표되면서 1995학년도에 장애인이 우리 나라 6개 대학에서 공식적, 합법적으로 입학했다. 이렇게 장애인의 고등교육이 구체화된 제도로서 나타남으로써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학이란 곳에 '장애인'이 실재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는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 이전까지 장애인에 대한 대학들의 일련의 태도에 대해 분명치 않았던 사회적인 평가나 분석들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보다 명확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 전까지 각 대학은 장애인의 입학과 교육에 대해 대학 임의대로 자의적인 해석과 근거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구제를 반복해 왔다.

이는 입시철만 되면 터지는 장애인 대학입학 사례들만 살펴봐도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때까지 대학은 대학의 권위와 이미지 추락(특히 '해당학과'), 해당학과의 학업 수행과 사회적인 진출(전공 관련 취업)의 어려움 등을 내세우며 전근대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로 장애인을 입학이나 재학 중 지원을 거부해 왔었다.

그런데 이후 장애인 특별전형은, 대학에서의 장애인 교육 차별<sup>1)</sup> 근거를 장애인의 대학 수학 능력이 아니라, 각 대학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 능력'으로 바꾸어 놓았다.

즉, 대학이 물리적인 편의시설이나 교육 환경이 여부가 장애인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또는 공부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결국 장애인 대학 교육의 책임과 문제는 장애인이 아니라 대학 당국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요컨대 장애인의 고등교육 차별은 자신의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교육 환경을 구비하지 못한 대학의 '장애'가 그 원인이다.(무장애대학 만들기란 이름도 여기서 연유했다.) 이렇게 장애인 고등 교육의 문제가 대학의 '장애'와 장애인의 교육 능력 미달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래서 많은 장애인 대학생들이 교육권을 훼손 당하고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그 문제 당사자인 장애인 대학생들은 이런 '차별'(discrimination)을 얼마나 체험했고 이해하고 있으며 인식하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 역시 어떠한가를 이 보고서는 짚어 보았다.

1) 일반적으로 차별 받는 사람들의 실제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 없는 생각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회적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구별(differentiation) 그 자체가 아니라 선지배적(先支配的)인 요소에 의해 규정되는 내집단에 대한 입회승인의 기준이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으나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별이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되는가의 여부는 특정사회 안에서 계층구분이 부인되느냐 승인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두산세계대백과 2000).



그러나 그 동안 이 보고서가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장애인 특별전형'의 문제들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특별전형이 여러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대학이전의 장애인 교육이 정상적이지 않은 현 상태에서 대학을 통한 장애인 개인의 자아실현이 조금이나마 가능해졌기 때문에 선불리 장애인 특별전형의 찬반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입학제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정책 입안자가 감안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와 동시에 정부로부터 대학으로부터의 장애인 대학생이 필요한 교육 환경<sup>2)</sup>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약속되지 않는다면 장애인 특별전형은 적극적 차별 조치(affirmative action)<sup>3)</sup>가 아니라 부정적인 차별의 합리화 도구와 다름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 특별전형과 장애인 대학생들의 문제, 대학의 장애인 교육 환경을 다루었던 많은 논문과 보고서 등이 그 동안 간과해 온 문제는, 주체인 장애인 대학생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기 보다는 단지 이들을 문제가 어떻고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 하는 대상화 관찰의 작업에만 매몰되어 당위적이고 선언적인 결론에만 머물러 왔다.

그 원인으로서는

**첫째,** 그런 제도를 통해 대학에 들어온 장애인 스스로가 자의든 타의든 의식하는 하지 않든 간에 일정 정도 자신의 '장애'가 그 전까지는 다른, 새로운 의미로 규정되어진다는 사실, 곧 대학에서 '장애'를 삶의 경험으로 하는 장애인 대학생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인격을 부여받는다는 것과,

**둘째,** 동시에 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장애'의 새로운 의미 규정은 장애인 대학생의 자아 정체성 형성의 방향과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과,

**셋째,** 이렇게 규정된 자아정체성<sup>4)</sup>, 또는 의식은 장애인 대학생들이 받는 차별과 인권 유린의

2)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단순히 신체적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학적능력을 뜻하는 것이며, '균등하게'란 수학적능력 이외의 요소 즉, 인종·성·종교·경제력 등의 요소로 인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으로(표시열, 1996), '동등한 균등(equal as same)'이 아닌 '적합한 균등(equal as fitting)'·사람들 모두가 천차만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의 최대 가능성을 찾아 보다 높은 삶의 가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정동영·김주영, 1997), **적합한 균등의 개념에 따라 장애학생들도 그들의 장애특성과 능력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이것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시열 (1996). 민주주의의 정착과 대학의 개혁.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를 참조하라

4) 여기서 글부러진 '정체성'과 '주체' 개념은 「지구화 시대의 전세계 노동자 中 4. 다양한 정체성과 다양한 전략들 : 국가, 자본, 가부장제에 맞서기(알리타 치지·르네피틴)」 2000. 4 로날드 몽크·피터 워터만 편 p.117 부분을 빌려왔다.

원인임과 동시에 결과이며 또한 과정이기에 '전체적'이라는 점,

**넷째,** '전체적인' 장애인 대학생들의 정체성 또는 의식은 그들과 관련한 교육 환경과 역시 원인인 동시에 결과이며 과정이기에 전체적이며, 더 나아가 '통합적'이고 이것은 장애인의 대학 교육 환경이 장애인들의 의식을 규정하며 동시에 장애인 대학생들의 의식이 그들의 교육 환경을 규정한다는 것 점등이다.

정체성은 구체적인 역사, 사회적인 맥락에서 그 이해가 가능하고 운동하는 주체들의 지위를 나타낸다.

정체성은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과정에 응하여 선별적으로 동원된다. 따라서 정체성은 주어진 한 시점에서 끊임없이 규정받으며 또 변화한다.

정체성은 객관적 주관적 요소의 상호 작용을 포함한다. '장애'라는 육체적인 차이에 의한 물질적 존재와 그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존재의 성격을 동시에 띤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 장애인 대학생들의 '차별'과 교육권 훼손 등의 인권유린에 대하여, 지난 7년 동안 문제 주체자인 장애인 대학생들에게 왜 침묵과 참음으로 일관해 왔는가와 일반 교육과는 달리 장애인들의 교육 문제는 왜 유독 장애인 개인의 노력과 인간 승리와 장애 극복의 코드로만 풀어져 왔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바로 그 문제제기에서 본 연구는 '차별도 인식에 관한 조사와 분석'이란 다소 주관적이고 의도적인 주제로 출발하였다.

여전히 저 발전 상태의 이론 분야인 '장애인' '차별' '의식'에 대하여 한국적인 상황<sup>5)</sup>에서 특수화되고 심지어 이상화된 장애인 대학생이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도발적인 작업인 것이다.

장애인 대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대가를 학교측에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대학의 헌법적 직무유기에 대하여 책임을 고민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 오히려 너희들을 배려해 주었으니 침묵하라고 은근히 강요하며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 후배에 대한 입학 을 불모로 교육환경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일까지 있다.

이것은 장애인 고등 교육 환경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책임이 약속으로 가시화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장애'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불이익과 차별의 책임을 사회가 장애인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그런 사회적인 규정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특별전형'이라는 국가 주도의 제도를 통해 대학입학을 대가로 주체들의 억압과 차별을 자기 합리화하도록 하고 있다.

5) 일본의 경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장애인 대학생'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천적인 장애인의 경우 고등교육의 필요성조차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 그럴 필요도 없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오세 불만족의 '오토다케'는 일본 사회에서 아주 예외적인 인물이다. (연구원 주)



따라서 장애인 대학생 차별도 인식 조사는 이번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의 '교육 환경 조사 목록'과 함께 조사 대상 20개 학교 중 10개 학교, 교육 환경 조사를 하지 않는 강남대를 포함하여 총 11개 학교의 장애인을 직접 만나서 각 대학교에서 장애인 대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과 경험을 하는지 조사했다.

그 불이익과 경험에 대해 장애인 대학생들은 그것을 차별로 인식하는지 아닌지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선택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sup>6)</sup>

이와 아울러 장애인 대학생 차별도 인식 조사에서는 바로 이 대학의 장애인 교육 능력의 질을 학생 사회 구성원(교수, 조교, 교직원, 비장애 대학생)의 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인식태도, 학교의 투자 태도 등을 장애인 대학생 스스로가 평가하고 검증함으로써 장애인 교육 환경에 대한 각 학교의 태도와 철학에 대해 그 주체인 장애인 대학생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살폈다.

## 2. 조사 연구 분석 도구

본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각 대학의 장애인 대학생이 일상적으로 겪는 비장애인 학생들과는 다른 어려움(보다 많은 노동력, 보다 많은 재정 투자, 보다 많은 위험에 대한 노출, 보다 많은 학업 성취 기회와 여가의 박탈)의 구체적인 불이익의 예를 '차별'로 일반화해서 제시, 장애인 대학생들의 '차별'에 대한 노출의 빈도 수를 측정했다.

이렇게 장애인 대학생들이 직면하며 체험하는 불이익에 대해 그들은 '차별'로 인식하는지, 아닌지 인식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얼마나 '차별'이라고 느끼는지 또 이것이 각 학교의 교육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 내용 분류는 다음과 같다.

6) 장애인 특별전형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연구들은 「서울지역 장애인 대학생 실태 및 의식조사 보고서」, 1994, 장애인 문제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운영회 활동 자료집 中 pp. 91-141을 참조하라.

<표 I-1> 연구도구의 구성

영역	문항내용	문항수
응답자의 배경 및 교육환경 특성	·개인정보 및 장애종류·정도·상태·상태의 진행/교육환경	9
응답자의 교육 환경 중 이동능력 및 도구	·운전 면허 여부 ·통학도구 종류 ·대학교 안에서의 이동 수단	3
교육환경 차별에 대한 인식정도 및 경험 노출 빈도수	입학과정에서의 차별 ·대학진학준비과정에서의 정보 습득 접근에 관한 차별 인식 여부와 그 원인 ·대학 입학 과정에서의 차별 경험 인식과 원인, 빈도수  재학 과정에서의 차별 ·교육 환경 차별로 인한 인식 정도 ·이미 구비된 교육 환경에 대한 평가와 차별 경험 노출 빈도수 ·차별에 의한 현상과 문제 직면 방식 ·그 차별에 대한 대안 및 정책 제시	5  7
대학의 교육 환경에 대한 장애인들의 평가	·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비장애인 대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교수, 강사, 조교들의 인식과 태도 ·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학교 당국의 투자와 태도 ·마련된 편의시설에 대한 평가 ·마련된 행정지원에 대한 평가	6

## 3. 차별도 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

연구 결과는 크게 응답자의 배경 특성(기초조사), 필요한 교육환경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애 상태와 일반적인 장애 등급, 그리고 대학 입학전의 교육 환경을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장애인 대학생들이 대학 사회 내에서의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고 참여하는 문제에 있어 어느 정도의 사회성과 통합성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를 가늠했다.

이 외에도 각 학생들이 대학 밖에서 안으로의 이동에 있어 어떤 기본적인 이동, 접근 능력과 도구를 이용하는지 파악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대학 진학 준비 과정과 입학 과정 그리고 재학 중에 겪는 다양한 불이익의 체험에 대해 얼마나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차별로 일반화하여 되풀이함으로써 얼마나 이런 경험들을 차별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는지를 측정했다.

그리고 이미 마련된 장애인 물리적인 행정적인 교육환경에 대해 그 교육 환경이 얼마나 장애



인 대학생들에 필요(need)와 만족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고 이를 구체적인 점수(대학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주로 쓰이는 알파벳 학점)로 나타내었다.

이와 아울러 교육 환경에 따른 장애 발생 시기와 대학 때까지의 장애 상태로 있었던 시간을 통해 장애인 대학생은 자신의 '장애'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수용하여 자기 인격 형성과 자아 정체성으로 내면화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를 밝혔다.

장애인 대학생들이 교육 환경 문제에 '차별'이란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어떻게 이를 처리하고 해결하는지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sup>7)</sup>

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학생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장애인 대학생들이 평가를 내리고 이를 통한 이후의 학업 수행과정(휴학, 자퇴, 제적, 편입)과 이에 대한 인식 정도로 검토하였다.

이 설문은 사전 연락과 만남을 통해 설문에 응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섭외 하였기에 무응답이나 설문 거부 그리고 학교 행정 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 등도 장애인 대학생 차별도 인식에 의미 있는 지표로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분명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장애유형 및 정도별 어려움이나 지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 유형, 상태별 분석을 했지만 모집단의 부족과 장애유형의 편중화로 인해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기저에는 모집단이 특수하고 응답자 수가 적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설문지 구성 시 전체 공통질문과 함께 장애 유형별로 구분된 구체적인 설문문항을 작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이후 설문지 작성 시 이러한 점을 보완한다면 더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 보다 자세한 것은 「장애대학생의 갈등과 정체성 형성」 2000, 정영석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논문을 참조하라.

## 1) 응답자의 배경과 교육 환경 필요(need) 특성

### 1> 장애인 대학생 입학, 재학생 수와 설문지 응답률

95학년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자 수부터 99학년도 입학자 수는 「특수교육연차보고서」 1996, 1997, 1998, 1999 교육부 자료를 참조하여 ( )로 처리하였다.

그 이후의 입학자 수는 해당학교 관련 부처에서 보내온 공문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대진대의 경우는 미실시로 썼고(일반전형 장애인 입학자 수 3명이상 10명 미만으로 추정) 장애인 재학생 수를 그 입학 전형에 따라 "특별/일반"으로 분류해서 파악했으나 공식적인 학교 문건을 통해 확인한 것은 연세대, 가톨릭대, 삼육대, 서울대로 몇 되지 않았다.<sup>8)</sup>

각 학교별 전형 방법에 상관없이 재학생인 장애인대학생수는 기본적으로 「대학종합평가 2000년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평가항목 및 결과」(교육부, 2000 비공개 자료)에서 각 학교가 교육부에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가톨릭대와 서강대에서의 경우에는 2000학년도를 기준으로 보고된 교육부 내용과 이후에 학교가 직접 밝힌 학생 수와 '교육 환경 조사 목록' 분석 과정에서 직접 파악한 학생 수 사이에, 오차가 컸다.

이 경우에는 직접 조사한 내용을 기준으로 교육부나 학교 측 자료를 병기하였다.

아울러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 연도와 그 장애인 입학자 수 그리고 동시에 재학생 수를 파악한 것은 이 세 가지 변수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그 통계의 행간에는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장애인 대학생의 문제가 입학 거부와 등록 여부, 교육 환경 미비로 인한 자퇴, 휴학, 편입, 제적이란 형태로 표출되어 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어느 대학도 이에 대한 명확한 통계는 없다.

다만 이들의 통계적 상관 관계와 직접 면담을 통해 추측할 뿐이다.

따라서 이후에 여기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된다.

'장애인대학생 차별도 인식 조사'설문에 대한 응답률은 <표II - 1>에서 보듯이 교육 환경 조사 대상 20개 학교 중 12개 학교로 60%이며, 20개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수 698명( 조사해당 학교가 아닌 한양대 안산캠퍼스 학생 수는 제외) 중에 응답자가 82명으로 11.74%를 차지했다.

8) 그 중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답변을 보내 온 곳은 건국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등이다.



<표 II- 1> 장애인 특별전형제도에 따른 학생 수와 장애인 대학생 차별도 조사 설문지 응답률  
(단위: 명)

장애 특별전형 실시 학년도	1995~2001학년도		1995~2001학년도 총장애인지학생 수 (특별/일반)	전체 학생에 대한 장애인지특별전형 재학생비율	전체 설문지 응답에서 학교별 비율 (전체 82부)	
	총장애인지 입학자 수 ( )는 99학년도 까지 학생수	총장애인지 입학자 수 ( )는 99학년도 까지 학생수			명	%
강남대	1995	(118)	103	23/8248	1	1.21
가톨릭대	2001	1	1/11 (편입1)	12명(교육부보고 · 0)	0	0
건국대	1997	49	47/		4	4.84
고려대	1996	(20)	24/		4	4.84
공주대	1996	23	21/		8	9.68
단국대	1998	(19)	15/		4	4.84
대구대	1995	(307)	273/	31/8442 · 0.36%	21	25.41
대진대	미 실시		/3	3/6428 · 0.41%	0	0
동국대	1997	(17)	16/	16/12631 · 0.12%	11	13.31
명지대	1996	(43)	24/		0	0
삼육대	2000	6	6/3	6/2891 · 0.20%	0	0
서강대	1995	(52)	21/	7(교육부)	4	4.84
서울대	2002 (실시 예정)		/27		0	0

장애 특별전형 실시 학년도	1995~2001학년도		1995~2001학년도 총장애인지학생 수 (특별/일반)	전체 학생에 대한 장애인지특별전형 재학생비율	전체 설문지 응답에서 학교별 비율 (전체 82부)	
	총장애인지 입학자 수 ( )는 99학년도 까지 학생수	총장애인지 입학자 수 ( )는 99학년도 까지 학생수			명	%
숙명여대	2000		6/	6	0	0
연세대	1995	68(학교)	32/6	39/20000 · 0.19%	6	7.26
우석대	1996	(28)	22/	22/8578	7	8.47
이화여대	1995	16	12/	12/18000	2	2.42
장신대	1995	4	1/	600/1	0	0
전주대	1997	(18)			10	12.10
중앙대	1998	(3)			0	0
한양대	1996	(76)	24(서울) 13(안산)	37/22217 · 0.17%	0	0
합 계		868	711		82	100

설문 과정에서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장애 학생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로 개인 정보 유출을 강력히 항의해서 설문이 곤란했으며, 서울대의 경우 장애인 대학생의 '차별'이란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반응이 의외로 커서 설문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설문이 0인 많은 학교들은 장애인대학생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 파악을 하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어서 설문 설외를 위한 장애인 대학생들의 인적 사항 파악조차 힘들었다.

이로써 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학교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재함을 잘 알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장애인 특별전형 여부를 떠나 재학 중인 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연구 등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서강대, 연세대 등이었다.

사회적으로는 대구대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 있으나 대구대는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재학생 수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뿐 일반전형, 편입생, 졸업생, 취업률 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 2> 응답자의 장애 유형 및 성별, 나이 특성

총 응답자 82명 가운데 지체장애 대학생이 34명, 뇌병변(뇌성마비) 12명 시각장애인 대학생이 24명, 청각장애인 대학생이 11명, 무 응답자가 1명으로 응답자 중 청각 장애인 대학생이 13.41%였다. 시각 장애인 대학생이 29.26%, 지체장애가 41.46%,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 대학생들이 14.63%였다.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를 보면 총 응답자 82명 가운데 68.29%를 차지하는 56명이 남학생이었고, 30.48%를 차지하는 25명이 여학생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2배정도 많이 설문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에 평균 나이는 22세이며 최연소는 19세, 최고령자는 32세이다.

## 3> 응답자의 필요(need) 환경에 따른 장애 정도별·상태별 특성

응답자들을 장애정도(장애등급)별로 나누어 보면 총 응답자 82명 가운데 1급이 36명으로 43.90%, 2급이 24명으로 29.262%, 3급이 17명으로 20.73%, 4급이 3명으로 3.65%, 5급이 4명으로 4.87%, 6급이 1명, 등급 무표기가 7명이었다.

이들 중에서 장애정도가 1,2급인 중증 장애인 대학생이 50명으로 60.97%로 가장 많았다.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정도를 살펴보면, 지체장애 학생의 38.23%와 청각장애 학생의 57.14%가 2등급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1등급 50%로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장애인 복지법의 상의 장애인 등급과 함께 장애인 대학생이 자신의 장애로 인해 필요(need)로 하는 보조 도구 및 환경에 따르는 '장애 상태'를 설문한 것은,

첫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는 장애인 등급은 그것 하나만으로는 그 장애 유형이 필요로 하는 환경과 편의시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둘째, 이 조사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대학생의 개개인의 불이익과 어려움을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나름대로의 인격과 사생활을 침범하거나 의도적으로 규정하려는 지향을 가진다. 그러므로, 응답자가 설문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또한 기본적인 배경 조사 외에 다른 설문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응답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거기까지만 설문에 응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 환경과 편의시설을 서면을 통해서나마 알아내고자 했다.

9) 1999년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 유형이 5가지에서 6가지로 확대되었고 이는 지체 장애가 뇌성마비(뇌병변), 지체 장애로 분리되었다. 이 보고서도 그 분류에 따르되 설문 당시에는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한 통계만을 이를 따르기로 했다.

셋째, 장애인 특별전형에 있어 일부 학교에서 중증 장애인 등급(1,2급)을 입학에서 우대하거나 등급이 높더라도 홀로 보행이 되거나 신변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등급으로 판정 받았다. 이 때문에 몇몇 장애인 학생들이 편법으로 장애인 등급을 올려 그 신뢰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넷째, 장애 유형의 특수성이나 경향에 따른 다른 변수의 파악은 한편으로 유용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장애인 대학생 수의 절대 다수가 아직까지 지체 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이 다.

게다가 설문 방식도 시청각 장애인의 필요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모든 장애인 대학생의 문제 논의나 대안 제시가 지체 장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고질적인 '다수의 횡포나 독재'를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수이기 때문에 그 다수의 문제만이 가장 심각한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받는 단 한 사람의 심각한 고통과 차별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이 차별도 인식 조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모든 통계나 표에서 단순 장애 유형을 밝히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가 했으며, 장애유형별 특성이나 경향이 중요할 때는 적절히 풀어서 설명하였다.

<표II- 2>에 따르면,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와 상태를 보면 전체 장애학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지체장애 학생의 경우 양쪽 목발만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6.05%, 양쪽 목발을 짚으면서 주로 전동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장애인이 1.21%, 혼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은 1.21%, 휠체어를 타면서 전동차를 이용하는 학생도 3.63% 목발이나 휠체어가 필요 없는 절단 장애 상태이거나 보조기를 착용하는 소아마비 등의 장애 상태인 장애인이 3.63%였다.

목발 등 보조도구 없이 보행은 가능하지만 비장애인과 동일한 정상적인 보행은 어려운 경우의 장애상태인 장애인은 24.96%였다.

그런데 홀로 보행이 가능한 지체 장애인(뇌병변 포함)가운데 단순 등급에 따른 1,2 급으로 분류되는 장애인도 꽤 있어 역시 등급에 따른 장애 유형 분류가 신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각장애인 대학생은 설문에 응한 장애학생 중 cane을 사용하는 전맹은 6.1%, 여기에 형체나 밝기를 구별할 수 있는 시력이 잔존하는 학생이 1.21%, 학업 시 점자나 녹음기를 주로 이용하는 학생이 1.21%, 글씨를 확대하거나 아주 가까운 데서 볼 수 있으면 학업이 가능한 학생이 1.21%였다. 또 맹인안내견을 이용하는 전맹인 장애인은 2.42%였다.

형체나 밝기를 구분할 수 있는 시력이 잔존하여 특수렌즈나 도수 높은 안경과 확대된 글씨 등이 있어야 학업이 가능한 학생은 2.42%, 형체, 밝기 구분 가능하며 한쪽 눈만 전맹, 혹은 고도의 약시이고, 다른 쪽 눈은 시력이 잔존하여 점자나 녹음기, 또는 확대된 글씨 등이 학업에 필요한 학생이 1.21%, 양 눈 모두 같은 정도의 시력이 잔존하고, 점자, 녹음기, 확대글씨 등이 필요한 학생이 역시 1.21%이었다.



<표II- 2> 응답자의 장애 정도(장애등급) : 장애유형별(단위 : 명(%))

구 분	장애 정도(장애 등급)							합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무응답		
지체장애	10(29.41)	13(38.23)	9(26.47)	0(0)	2(5.88)	0(0)	0(0)	34(100.00)	
뇌병변 장애	3(25)	4(33.33)	3(25)	2(16.66)	0(0)	0(0)	0(0)	12(100.00)	
장애유형	시각장애	12(50.00)	3(12.5)	4(16.66)	1(4.16)	1(4.16)	0(0.0)	1(4.16)	24(100.0)
	청각장애	1(14.28)	4(57.14)	1(14.28)	0(0)	1(0.0)	0(0.0)	0(0)	7(100.0)
	무응답							1(0)	
합계	36(43.90)	24(29.26)	17(20.73)	3(3.65)	4(4.875)	1(1.21)	7(8.53)	82(100.0)	

글씨를 확대하거나 아주 가까운 데서 볼 수 있으면 학업이 가능한 학생은 4명(4.48%)이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잔음성 난청으로 보청기로 소리를 감지할 수 있고 청력손실이 41dB 이상이거나 보청기를 사용해도 보통 말소리의 이해가 어려운 56dB 이상의 난청인 학생이 1명이었다. 감음성 난청으로 보청기로도 소리를 인지하기 어려우며 청력손실이 90dB 이상으로 56dB 이상의 난청인 학생이 1명, 구화로 70% 이상 가능한 학생이 2명, 수화와 구화를 같이 사용하는 학생이 1명, 이 중에 수화를 주로 사용하는 학생이 1명이었다.

또한 청각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언어장애를 동반한 경우 전음성 난청으로 보청기를 사용하면 소리를 감지할 수 있으며 청력손실이 41dB 이상인 학생으로 말을 하면 상대방이 다시 똑똑히 말해주기를 요청할 때가 많은 정도의 언어장애를 가진 학생도 1.22%이다.

결론적으로, 지체 장애인의 경우(뇌병변 포함) 장애 상태로만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은 물리적 이동과 접근, 이동 및 이용에 있으며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환경보다 상대적으로 정보와 직접적인 학습에 대한 접근 이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장애인 대학생의 정체성 형성과 학생 사회 통합 정도

### 1> 장애 상태(condition or set)의 시점과 기간별 특성

이 설문 문항들은 장애인 대학생 차별도 인식 조사가 얼마나 장애인 대학생 스스로 '장애인'임을 자각하고 장애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차별<sup>10)</sup>'을 인격적인 정체성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sup>11)</sup>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야만 자신의 '장애'로 경험한 여러 상대적 불이익에 대해 그것을 '차별<sup>12)</sup>'로 인식할 수 있으며 '차별'로 인식되어야만 그것은 대학과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전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 이후의 연구들이 수많은 통계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그 통계 주체들의 문제를 무시하고 현상적인 결론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애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많은 설문에서 장애인 대학생들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도적이든 객관적인 가설이든 간에 달리 교육 환경문제를 크게 제기하지 않는다.

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장애인 교육 환경 결과와는 엄청난 차이를 갖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대학의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대학생' 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 상태'의 대학생의 문제이며 그 원인이다.

장애 상태의 시점과 기간별 특성과 진행 정도의 경우가 장애인 대학생 차별도 인식 조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신체적 '장애 상태'가 정신적인 자아 정체성 형성과 문제 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또래집단의 이해, 비장애인들과의 대인관계등 장애인 대학생들의 사회성 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대학 진학 前 교육 환경 특성을 묻는, 즉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빨리, 어느 시기에 비장애 학생과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받았는지를 따지는 설문과 함께 '차별을 야기하는 주변의 사회적인 환경'에서 그 원인이 자신의 '장애'때문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줄 것이다.

이 분석 결과에 따라 장애인 대학생이 비장애인 학생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학생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차이'인 자신의 '장애'를 이해시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장애인 대학생들의 '관계'와 '인격'에서 비장애인과의 '차이'를 의식적으로 어떻게 수용하는가를 알 수 있다.

10) 장애인 차별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는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 영향 분석」 2000, 2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석사 학위논문 10p~15p를 참조하라

11) 장애인들 또한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가능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사회의 상호존재적인 본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존재라고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Nirje, 1969).

12)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차별과 편견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차별이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 야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차별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편견과 선입견은 인식상의 문제이고 차별은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된 영역이다.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 영향 분석」 2000, 2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석사 학위논문 p6 재인용



이 설문 문항은 장애인 대학생이 '장애 상태'에 놓인 시간에 비례하여 자신의 장애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 수용하며 얼마나 일찍 비장애인들에게 노출되고 접촉을 했는지에 따라 자신의 장애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이해시킬 것이라는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통합 교육<sup>13)</sup>의 단순 가설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 표Ⅲ-1 > 장애인 대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따른 장애발생 시기

(단위 명%)

시기	출생시	출생-취학 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인원	38(46.34)	25(30.48)	5(6.09)	3(3.65)	5(6.09)	2(2.43)

위 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장애인 대학생들은 출생할 때부터 또는 취학 전에 장애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76.82%)

<표Ⅲ-1>를 보면 대부분의 응답 장애인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가치관이 형성된 이후에 사고나 병으로 장애가 발생한 중도 장애인들이 겪는 차이에 따른 갈등은 겪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함이 비교적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Ⅲ-2>를 살펴보아도 대학 진학 이전에 다닌 교육 기관 역시 대부분 일반 학교로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전체 장애인의 비율<sup>14)</sup>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그러나 특수학교만 다니다가 아니면 특수학교를 다니다가 일반학교로 가거나 일반 학교에 있다가 특수학교로 다시 가서 대학에 진학했던 경우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렇게 통합과 탈(脫)통합이 상호 반복됨으로써 장애인 대학생들의 자아 인식에 적잖은 혼란을 주고 있음이 10월 26일~27일 했던 무장애대학 만들기 1차 간담회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sup>15)</sup>.

13) 여기서 말하는 통합교육이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그들의 전반적인 발달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살려가며 교육 하되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을 때만 특수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단순히 외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한 교실 안으로 몰아넣는 식의 교육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교육을 통하여 서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육방법 및 철학, 시스템 자체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전국장애인학부모협회, 1997).

14) 1990. 서울시 조사와 비교 검토해 보라

15) "대구대학교는 타학교보다 장애시설이 좋다. 장애학생들이 많기도 하겠지만 오랜 역사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약시로 쑤장대인이기 때문에 맹이나 청각의 고도 장애인들의 심정을 모른다. 어쩔 때는 일반아로 느껴질 때도 있고 장애인이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 난 짬뽕 인간이다.(대구대, 시각장애 대학생과 인터뷰 중에서)

< 표Ⅲ-2 > 대학이전 교육 환경과 진학 과정 (단위 명%)

초기 입학	대학 이전 교육 환경과 진학 과정	응답자중 비율 · %
	초등~고등 과정을 거치고 대학 바로 진학	16/82 (19.51)
	초등~고등 과정을 거치고 다시 공부해서 진학	1/82 (1.21)
	초등~일반학교 중·고등 과정을 거치고 대학 바로 진학	2/82 (2.42)
	초·중등과정을 졸업하고 다시 일반 중·고등 과정을 거쳐 대학 바로 진학	1/82 (1.21)
특수학교	초·중등과정을 졸업하고 다시 일반 중·고등 과정을 거쳐 다시 공부해서 진학	1/82 (1.21)
	초·중등과정을 졸업하고 일반 고등 과정을 거쳐 대학 바로 진학	1/82 (1.21)
	초등 과정을 마치고 일반 중·고등과정을 거쳐 바로 대학에 진학	1/82 (1.21)
	초등 과정을 마치고 일반 중·고등과정을 거쳐 다시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	1/82 (1.21)



< 표Ⅲ-2 > 대학이전 교육 환경과 진학 과정

(단위 명%)

초기 입학	대학 이전 교육 환경과 진학 과정	응답자증 비율 · %
	초등~고등 과정을 거치고 바로 진학	38/82 (39.02)
	초등~고등 과정을 거치고 다시 공부해서 진학	5/82 (6.05)
	초등과정을 거치고 고등 과정에 중퇴하여 검정고시 고등과정 마침	2/82 (2.42)
	초등학교 과정을 거치고 다시 특수학교 초등~고등 과정을 거치고 대학 바로 진학	3/82 (3.63)
	초등~고등 과정을 거치고 다시 특수학교 고등 과정을 거치고 대학 바로 진학	2/82 (2.42)
일반 학교	초등~중등 과정을 거치고 특수학교 고등 과정을 거치고 대학 바로 진학	1/82 (1.21)
	초등과정을 마치고 특수학교 중·고등 과정을 거치고 대학 바로 진학	1/82 (1.21)
	초등 과정을 거치고 검정고시로 중·고등 과정을 마치며 대학에 바로 진학	1/82 (1.21)
	초등 과정을 마치고 특수학교 중·고등 과정을 거쳐 다시 특수학교 고등부를 더 다니고 대학에 바로 진학	1/82 (1.21)
	일반 학교 초·중등 과정을 거쳐 특수학교 중·고등을 거치고 대학 바로 진학	1/82 (1.21)
	무응답	2/82 (2.41)

이는 학교별 장애인들의 입학자 수 편중과 그에 따르는 선택학과의 편중 현상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데 <표Ⅲ - 3>을 보면 전통적으로 장애인 대학생이 많다.

장애 관련 학과(특수교육과, 사회복지학과)가 다수 개설되어 있는 경우 (대구대) 장애인 대학생이 그 학교와 그 학과들로 진학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런 경향은 일반 학교를 나온 학생보다 특수학교만 다녔거나 특수 학교를 다녔었던 학생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이런 선택의 경향을 가진 장애인 대학생들은 특정 유형과 특정 특수학교로 편중되는데 주로 시각 장애 학생들(전맹과 고도 약시)은 특수학교 과정 이수만을 통한 대학 진학 비율이 높았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특수학교로의 상호 통합, 탈통합이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구화'(입술읽기)가 가능해야만 현실적으로 대학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어렸을 때 특수학교에서 구화를 학습하여 일반학교로 취학하거나, 아니면 이미 취학 전에 구화를 습득하여 일반학교로 통합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체 장애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대학 진학률이 다른 특수학교보다 높고 대학 진학 지도 경험이나 노하우가 풍부한 특수학교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다른 지체 관련 특수학교 보다 높았다.<sup>16)</sup>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에 꼭 필요한 보충수업이나 과외를 받지 못했던 이유를 장애 유형과 관련지어 살펴볼 때, 지체장애 학생과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그들이 특수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보충수업이나 과외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아도 대학이전 교육 환경이 진학 과정에 주요한 변수로 반영됨을 알 수 있다. (2001 김헬레나)

그 특정 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대학교의 장애인 학생들의 계열별 학부별 학과별 분포가 상대적으로 고른 것을 보면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가 뜻하지 않게 특정 지역의 특정 대학에 특정 장애 유형들의, 특정 특수학교의 장애인을 집중시키고 다른 사회와의 통합을 가로막는 또 다른 분리교육을 조장하는 한 요인이었다.<sup>17)</sup> 또한 200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국립 재활전문 대학<sup>18)</sup>도 장애인을 집중시키는 소북화의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16) 설문 문항에는 빠져 있으나 설문 작업 중이거나 사전 인터뷰를 통한 결과이다.

17) 이것의 또다른 예는 건국대에서 발표한 97학년도 특수교육 대상자 정립회관 분리 교육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8) 정부는 회의에서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02년 경기 평택시 장안동에 특수전문대를 개교하고 시, 도 교육청별로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2, 3년제로 운영되는 국립 특수전문대는 재활복지, 물리치료, 전산정보처리 등 4개 계열 12개학과, 780명을 장애인 위주로 선발한다. (복지 연합신문 2001년 1월 26일자)



<표III- 3> 장애인 대학생 응답자 학과·학부 전공 분석 및 분포

(단위 : 명(%))

학제	계열	인원	학부	인원	학과	인원
사 법	사 법	27	특수 교육	9	특수 교육	16
					초등특수 교육	5
					중등 특수교육	2
					국어교육	2
					계	25
계	27	계	9	계	25	

학제	계열	인원	학부	인원	학과	인원	
인문사회	인문	4	언어문화	1	영문학	1	
			인문, 인문사회	3	역사학	1	
			사회과학	9	사회과학	1	
			사회과학	5	지역사회개발학	1	
	사회	5	사회복지	국제사회언론	1	지역계획학	1
				사회복지	2	사회복지학	5
	법학	2	법정	사회복지법정	1	사회복지법정	1
				법학	2	법학	2
	경상	1	정경	행정	1	행정	1
				경영	2	경영학	2
상경	1	통상회계	회계학	1	회계학	1	
			금융보험학	1	금융보험학	1	
계	18	계	23	계	18		

학제	계열	인원	학부	인원	학과	인원		
자연 및 응용과학	이공	2	자연과학	1	천문우주학	1		
			도시과학	1				
			계	1	계	1		
			전자컴퓨터	2	전자계산학	2		
컴퓨터 및 공학	공학	5	컴퓨터정보통신	1	컴퓨터과학	1		
			컴퓨터정보공학	1	컴퓨터공학	1		
			정보통신	1				
			정보기술	1	멀티미디어학	1		
			정보산업대학	1				
			정보산업공학	2				
			컴퓨터 관련 소계	9	관련학부	9	관련학과	5
			공과	2	산업전산전자	1	전기전자공학	1
			공학	2				
			계	9	계	12	계	6

학제	계열	인원	학부	인원	학과	인원
예·체능	예체능	3	조형예술	1		
			디자인문화	1	실업디자인	1
			예체능	1	서양화	1
			계	2	계	2
전체	총계	59	총계	35	총계	52



### 3) 각 학교별 장애인 대학생들의 통학 이동 수단과 학내 이동 수단 분석

이 설문 문항은 장애인 대학생들의 운전 면허 소지 여부와 통학 도구 종류 분석을 통하여 집에서 학교까지의 이동권 확보 그리고 대학교 안에서의 이동 수단을 파악해서 이와 관련한 적절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되었다. 또한 본 설문은 '교육환경 조사목록'의 학교 건물의 차량 진입 가능과 장애인 주차장 설치 여부 항목과 연계되어 교육 환경에 대한 이동, 접근, 이용성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표IV - 1> 장애인 대학생 통학 도구 및 학내 이동수단에 관한 통계분석 (단위 : 명(%))

대학	면허 유무		주요 통학수단								
	유	무	자가용	지하철	버스	택시	전동 휠체어	수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시각 안내견	통학로 암기
대구대	5	15	2	0	1	0	4	2	0	2	8
전주대	3	7	0	0	6	1	0	0	0	0	3
서강대	1	3	2	1	0	0	0	0	0	0	1
공주대	1	7	1	1	1	0	0	1	0	0	4
우석대	1	5	0	0	1	0	0	0	0	1	5
건국대	1	2	1	1	1	0	0	0	0	0	0
단국대	2	2	0	3	2	0	0	0	0	0	1
이화여대	1	1	0	1	2	0	0	0	0	0	0
강남대	0	1	0	1	1	0	0	0	0	0	0
고려대	1	3	0	2	1	1	0	0	0	0	2
동국대	5	4	2	4	2	0	0	0	0	0	0
총계	21	50	8	14	18	2	4	3	0	3	24
비율%	30	70	11	18	24	3	5	4	0	4	31

대학	주요 학내이동수단					
	자가용	전동 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업혀서	도보
대구대	2	5	2	0	0	10
전주대	0	0	0	0	0	10
서강대	2	1	0	0	0	1
공주대	1	0	1	0	0	6
우석대	0	0	0	1	0	6
건국대	0	0	0	0	0	3
단국대	0	0	0	0	0	4
이화여대	0	0	0	0	0	2
강남대	0	0	0	0	0	1
고려대	0	0	1	0	1	4
동국대	2	0	1	0	0	5
총계	7	6	5	1	1	52
비율%	10	8	7	1.5	1.5	72

이를 보면, 주요 통학 수단과 학내 이용 수단으로 자가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각 건물에 대한 차량으로의 접근가능성과 장애인 주차장 마련 또는 장애인 주차장 요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도보를 제외한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의 이용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각 건물의 외·내부까지의 물리적 접근성과 이용이 가능한 건물 외, 내부의 경사로·승강기가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대학생들의 주된 통학 수단이 지하철과 버스임이 나타나 최근 들어 전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장애인 이동권과 궤를 같이 하며 대학 내의 편의시설과 교육 환경뿐 아니라 대학 주변의 지하철과 버스 등과 같은 대중 교통의 이동권 보장책이 필요했다.

특히 시각 장애인 대학생의 경우 통학로를 암기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위한 안전 시설 구비(차도와 인도의 구분)와 교통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 4) 장애인 대학생의 차별에 대한 인식과 불이익 경험 사례 분석

##### 1> 장애인 대학생의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이 설문 문항들은 장애인 대학생들이 교육 환경의 미비와 교수, 교직원, 비장애 학생들의 편견 등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통과 불이익을 '차별'로 일반화해서 장애인 대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를 알아 보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정책 중 1순위를 매겨보도록 했다.

'차별'로 일반화하여 설문 문항을 만들기 앞서 사전에 많은 장애인과의 긴밀한 상담과 참여 관찰을 통해 그 '객관성'을 검증하였으나 장애인 대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그 상태에 따라 필요(need)와 욕구가 천차만별이므로 성급한 일반화의 위험성-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이 있음을 미리 밝힌다.

이 설문은 일반적으로 이미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고 규정한 장애인들의 '차별'의 종류와 정도뿐만 아니라 문제 주체자인 장애인 대학생 스스로가 어떤 체험과 불이익, 상황에 대해 이를 '차별'이라고 인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를 보았다.

그래서 이 설문은 그 체험과 불이익, 상황들을 사례별로 제시했고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장애인들의 입학 과정-진학에 대한 정보 접근-입학할 때 원서 접수 및 진로 선택에서의 사례들, 대학 재학 중의 경험들을 제시하고 선택의 빈도 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설문 문항 자체가 장애인 대학생들에게 이리이러한 것이 차별이다라고 하는 의식적인 '의도성'을 갖고 있음으로 설문 앞부분에 '차이와 차별'이라는 글을 달아서 미리 응답자들에 이 설문의 의도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구했다.

설문의 의식적인 조작은 주로 장애인 대학생들이 실지로 겪는 문제와 불이익에 대한 체험을 묻고 이것이 차별인지 아닌지를 묻는 형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표 V- 1,2>와 예서처럼 설문 문항 성격에 따라 정리되었다.

<표 V - 1> 장애인 대학생의 각 진학·입학 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한 규정이전에 대한 차별 인식도 (%)

	받은 적이 있다.	받은 적이 없다.	무응답
진학준비 과정	29.48	52.56	17.96
입학 과정	43.90	36.06	20.94

위 표에서 보듯이 2000학년도 이후 장애인 입학 차별에 대한 규정이 많이 완화된 이후에도 가시적인 차별은 여전히 있으며 여기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식도 다른 차별 유형 인식보다 높았다<sup>19)</sup>. 진학 준비 과정에서의 차별은 장애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위한 학습지도를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영해주고 있다.(2001.김헬레나)

<표 V -2> 장애인 대학생의 각 진학·입학 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한 규정 이후 차별 인식도 (%)

	차별이다.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진학준비 과정	82.06	7.69	10.25	4.84
입학 과정	75.00	9.37	0	16.24
재학 과정	81.56	16.5	0	1.94

이리이러한 경험이 차별이라는 것을 일반화 시켜주고 (<표 V-3>참조) 다시 질문을 하였을 때는 앞에 <표 V - 1>보다 훨씬 높아 장애인 대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현실적인 차별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장애인 대학생들 중 절반이 훨씬 넘는 수가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비장애 학생들이 대학진학 정보를 얻는 것보다 어렵다고 응답했다.(2001 김헬레나)

19) 참고로 전체 재가장애인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취학에 있어서 사회적 차별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사람이 30%, 많은 편이라고 한 사람이 14.1%, '가끔 있는 편이다'가 10.8%, 거의 없다는 대답이 45.0% 였다.(2000년도 장애인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 차별도 인식과 차별 사례의 연관성

<표 V - 1,2,3>을 분석해 보면 설문에서 먼저 입학 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후, 이를 차별로 여기는지를 묻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차별을 받았다면' 또는 '차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라고 조건을 달아서 한정시킨 조건형 설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답자가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답을 주었다.

설문 방법이 설문자를 미리 교육하고 응답자들에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설문 내용을 구한 다음 전자 우편으로 답변을 받은 방법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이 통계를 설문상의 오류로 처리하기엔 무리가 따랐다. 따라서 이들을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적지 않은 장애인 대학생들이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신들이 겪는 불이익들을 차별이라 생각하지 않거나 아예 그것을 불이익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답변을 전체 빈도수로 해서 사례별 비례를 구했다.

아래 <표 V-4> 표는 입학과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각 첫 문항에서 "차별 받은 적이 없다.(차별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포함)"라고 답한 응답자들 중 이후 구체적인 차별 사례들에 답한 사람의 비율을 구한 것이다.

<표 V-4> 차별 경험 없음에 대한 응답자의 구체적 차별사례 답변 비율 (%)

대학	입학과정			학교생활		
	차별경험없음	차별사례답변	비율(%)	차별경험없음	차별사례답변	비율(%)
강남대	1	1	100			
건국대	4	4	100	1	1	100
고려대	2	1	50			
공주대	5	3	60			
단국대	3	0	0	1	1	100
대구대	14	9	64.3	7	7	100
동국대	8	1	12.5			
서강대	4	1	25	3	2	66.7
연세대	4	1	25			
우석대	4	3	75			
이화여대	1	0	0	1	1	100
전주대	7	5	71.4			
계	57	29	50.9	13	12	92.3

위 표를 보면 많은 장애인대학생들이 차별에 대해 의식적으로 부정하면서도 구체적 차별 사례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0)</sup>

이러한 장애인 대학생들의 자신의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차별'이라는 추상적 개념사이의 괴리는 장애인들이 '대학생'이라는 지위를 얻음으로써 장애인 대학생들이 비장애인으로서의 지위와 정체성을 얻음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장애'로 인한 부조화 때문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복수의 정체성이라는 혼란스러운 현실이 그 속에서 수행되는 사회적인 관계의 경험에 대한 부적응은 곧, 구체적 불이익 경험 → '장애'의 부조화 → 차별이라는 개념의 의식적인 거부 → 구체적 불이익 경험에 대한 장애인 대학생 개인의 노력, 극복 지향 → 장애 극복, 인간 승리의 이데올로기 → 또 다시 '장애'라는 개인의 개별적인 '차이'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에 대한 장애인 대학생의 내면화 또는 동의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저항의 양적 질적 저하라는

20) 이를 설문상의 오류로 나누지 않은 것은 설문 방식이 '직접 면접 방식'이라는 것 설문 이전에 설문의 의도와 조작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장애인 대학생의 '차별'에 대한 의식을 통제하는 순환 구조를 갖추게 했다<sup>21)</sup>.

풀어 보면, 장애인 대학생들은 현실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고 그 환경에 의해서 불리한 경험을 되풀이함에도 그 불리한 경험의 책임이 그 불리를 만들어 낸 사회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애'에 있다고 끊임없이 규정된다.

그리고 장애인 대학생은 그의 장애라는 '차이'로 그 개별성(individuality)을 사회와 학교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화하는 최대한 노력과 비장애인인과 동등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인정받고 수용된다.

이에 장애인의 최소한의 경쟁력을 검증하는 구체화된 도구가 장애인 특별전형이고 그 특별전형 취지에 걸맞는 교육환경이 확실히 준비되지 않는다면 대학의 장애인 교육 환경 차별은 일면 장애인과 대학의 대립양상이 아니라 대학에 입학하려는 장애인과 그것을 짐짓 허용한 대학 당국의 동의 내지는 합의 또는 거래의 대가로 이루어진다<sup>22)</sup>.

### 3> 장애인 대학생의 차별과 장애인 특별전형의 문제점

이러한 구체적인 차별 사례의 응답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통하여 아래 <표 V-5>에서 나타난 입학 과정에서의 차별의 양상과 경험 등이 충분히 설명된다.

결국 대학 당국은 대학 입학을 기준으로, 장애인 특별전형 이전까지는 장애인 개인의 능력으로 문제 삼다가 장애인 특별전형이후에는 대학의 장애인 교육 능력에 따라 장애인을 입학시키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 전 지원계열 학부, 학과의 전환을 권유, 강요하거나 또는 면접에서 사실상 불합격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표 V-3> 장애인 대학생들의 입학 과정에서의 '차별' 경험의 종류 (%)

원서접수 자체를 거부	원수 접수 전(前) 면담을 통한 거부	원서접수전 지원계열 학부, 학과의 전환을 권유받거나 강요당함	입학과정·사전면담 면접시 모욕적인 발언, 질문을 받은 경우
11.47	8.19	16.39	27.86

21) 차별과 차이 장애극복이데올로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당대비평 '다름에 대하여'] 2001 여름호 pp. 152-163, pp. 177-p194 참조하라

22) 대학진학이 가장 효과적인 사회 계층이동 수단이 되는 한국 교육의 특이한 사회적 성격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표 V-5> 장애인 대학생들의 입학 과정에서의 '차별'(입학거부 및 전향) 경험의 원인 (%)

장애가 너무 심하거나 특정 장애유형(청각·시각·휠체어·뇌성마비)을 이유로 편의시설이 없거나 교육환경 지원등을 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52.77
지원학과(계열·학부)가 장애를 이유로 학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11.11
지원학과(계열·학부)가 장애를 이유로 졸업후 취업이 어렵다고	22.22
입학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여러 가지 각서나 계약서 등을 강요받음	13.88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특별전형 자체가 국가나 교육 정책 당국에 의한 강제 사항이 아니라 교육부의 권장에 의한 대학 당국의 자유로운 선택사항이라는 점이다.

결국, 대학 당국 스스로 자신들의 장애인 교육 능력에 따라 장애인들의 입학 여부나 교육 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공식 선언과 다름이 아니다.

이것은 장애인 특별전형이란 이름 하에 적절한 교육 환경이 준비되거나 약속되지 못한다면 이른바 **배려된 장애인 대학 입학 허용**은 오히려 대학의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정당하게 만드는 합리화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위 표에서처럼 이런 차별은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00년 들어 장애인계의 저항으로 가시적인 각서나 계약서 등이 법적으로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대학은 이러한 장애인 고등 교육 기회 확대라는 명분으로 대학 자신의 교육 능력에만 합당한 장애인을 '골라' 받고 있으며 그렇게 골라낸 이후에도 '업혀서 훌륭히 졸업하기를', 또는 '입학시켜 주었으니 감사히' 내지는 '입학성적이 다른 비장애인보다 낮으니 낙오하고 말 것'이라는 결정론적 사고로 장애인 대학생들을 강제하며 차별하고 있었다.

그 차별의 결과는 <표 V-6>에서처럼 생각보다 심각하다.



<표 V- 6> 구체적 차별 사례에 대한 장애인 대학생들의 체험 빈도 수 (%)

물리적인 편의시설 등이 없어 아예 접근을 못하거나 시간이 걸려 수업이나 시험을 못 받은 적이 있다	(9.52)
교수나 조교가 장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수강자체를 거부하거나 수업참여에서 차별 받은 적이 있다.	(7.48)
공부하는데 있어 장애 유형을 고려한 학습기자재나 교육환경을 지원해주지 않아 원래 실력보다 낮은 학점을 받은 적이 있다.	(10.20)
공부하거나 시험을 보는데 답답 조교나 교수들이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아 원래 실력보다 낮은 학점을 받은 적이 있다.	(10.54)
강의실을 찾지 못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수업이나 시험을 못 받은 적이 있다.	(5.44)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충분하지 못해 음식 섭취를 조절하거나 집 또는 병원에서 일을 본 적이 있다.	(3.74)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충분하지 못해 낭패를 본 경험이 있다.	(2.38)
장애인을 위한 행정지원이 없어 수강신청등의 학사 관리에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7.14)
학교 식당에 물리적인 편의시설이 없어 굶거나 학우들과 함께 식사를 못해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5.44)
학교 식당이 셀프 서비스라 굶거나 학우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14.96)
학내 복지시설, 학생자치시설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나 지원이 없어 참여에 차별 받은 적이 있다.	(6.46)

위의 통계치가 전체 응답 장애인 대학생 중에 적은 수라 할지라도 응답한 장애인 대학생 중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애'라는 개별성을 고려한 교육 환경이 필요하지 않는 경증 정도 장애인이 상당함을 감안하여 보면 위의 경험 사례의 빈도 수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오히려 그 불이익 경험의 심각한 정도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장애인 특별전형의 미래가 중증 장애인의 대학교육 확대에 있는 것이므로 위에 나타난 차별은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상태로까지 심각할 수 있다.<sup>23)</sup>

위의 불이익 경험을 당한 장애인들은 화장실과 먹는 문제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의 부재로

23) 1991년에 강남대에서 있는 휠체어 장애인 백원욱씨 추락사망 사고를 상기하라

인해 생존 여부를 결정 당할 수 있는 지경이며 학문의 수월성, 학업의 접근성 등 대학 본연의 역할도 장애인 대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미흡해 '차별의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마저 상존<sup>24)</sup>한다.

이러한 차별의 악순환은 이후 장애인 대학생의 대학 진학 포기, 휴학, 자퇴, 편입, 심지어는 '자살'<sup>25)</sup>이라는 심각한 결과로까지 이어진다.

<표 V-10> 장애인 대학생들의 교육 환경 차별과 체험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 태도

인식·태도	자퇴 고려	휴학 고려	자퇴이후 입학	실제 휴학	미리 예상하여 학과진로 결정
%	12.36	21.69	2.83	4.71	37.73

또한 <표 V-10>에서처럼 전체 응답 대학생의 79.82%가 진학 중에 아니면 재학 중에 그 교육 환경 미비로 인해 학교를 바꾸거나 쉬거나 이런 차별적인 환경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장애학생들도 비장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적성과 관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장애학생의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 또한 학과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지원 가능학과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애학생들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전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 김헬레나)

2001년 8월에 발표된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김헬레나 교육학 석사학위는 문에서도 응답한 학생 중 63.6%에 해당하는 장애학생이 '만일 자신이 장애인이 아니라면 현재 전공과는 다른 전공을 택했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가 전공을 선택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 5) 마련된 장애인 교육 환경과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 대학생들의 평가와 차별 분석

대학이 교육기관이라는 자기 존립근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장애인 대학생이라는 존재는 대학 당국으로부터 또는 정책 입안자인 국가로부터 유의미<sup>26)</sup>할 것이다.

24) 실제로 많은 시청각 장애인, 언어 및 필기등 자기 표현 능력에 장애를 갖고 있는 뇌성마비 장애인 대학생의 경우 교육 환경미비로 인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이는 곧바로 학점으로 나타나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장애인 대학생들의 낙인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책임 연구원 주)

25) 장애인 대학생의 입학 과정 또는 재학 중 자살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설문 면담과 무장애 대학 만들기를 진행하는 동인의 참여 관찰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대략 6건 정도가 확인되었다. (책임 연구원 주)

26) 즉, 교육상의 평등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국가에게 공적 교육기관에 입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교육받을 권리에 포함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기관을



그렇다면 이후에 장애인 교육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것에 대해 장애인 대학생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역시 중요하다.

이것은 자기 권리의 담지자로서의 장애인 대학생이 자기의 절박한 필요에 대한 충족의 만족도를 '차별'이라는 잣대로 얼마나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차별과 필요의 인식에 순차적 단계를 구분해서 설문하였다.

이런 차별의 순차적 단계구분은 그 척도에 있어 그 학문적인 엄밀성은 모호하지만 대략적으로 장애인 학생에 대한 학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책임과 이해의 정도로 구분하였다. 교육 환경 조사 맨 앞장에 밝혔듯이,

**첫째, 장애 학우에 대한 교육권을 학교가 책임지는가, 개인이 책임지는가, 자원활동으로 대체하는가?**

**둘째, 장애인 대학생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가 전문성이 있는가? 없는가?**

**셋째, 시스템자체를 시청각 장애 학우들을 위해 변환하는가에 중점을 두어 가장 중증의 장애인이 대학교에 들어와 정상적이 대학생들이 가능한 교육 환경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그 설문 결과는 아래의 <표 V-5>로 정리되었다.

**<표 V-5> 장애인 대학생들의 재학 과정에서의 '차별' 인식과 정도 (%)**

장애인을 위한 교육환경이나 지원 등을 학교가 하고 있긴 하나 전문성이 없고 보여주기 행정에 머물고 있어 차별적이다.	(42.71)
학교에서의 지원은 없으나 학우들의 도움이나 조교, 교수 등의 지원으로 공부하고 있어 다소 차별적이다.	(23.3)
학교가 별다른 지원을 해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잘 도와주지 않아 개인적인 노력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 명백히 차별이다.	(15.53)

표에서처럼 대부분 차별을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 대학생들의 경우 자신들을 위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데 있어 당사자인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단지 전시 행정적으로 또는 교육부의 대학 평가만을 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있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것은 평등권의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는 장애를 이유로 교육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자유권적 측면과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존을 위하여 국가는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해야한다는 사회권적 측면을 아울러 가진다고 할 수 있다(권건보, 1999).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육 환경을 마련한 학교와 학교의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배려로 마련한 학교,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연구를 통해 마련한 학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의 대표적 학교로 연세대와 우석대를 꼽을 수 있으며 두 번째의 학교로는 대구대와 나사렛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의 학교로는 서강대 등이다.

연세대와 우석대의 경우에도 일정정도 장애인 학생들의 요구가 관철되어 그것이 제도화되고 난 이후에는 권위적이고 다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관료적이며 과두적 모습을 띄었다.

<표 V-7>과 장애인 교육 환경 조사 목록에서 드러나듯, 장애인 교육 환경이 가장 나은 학교로 알려진 대구대의 경우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나 학교가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많은 학생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대구대의 경우 전국 전체 장애인 대학생의 절반이 넘는 수가 재학하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도 장애인 대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많이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장애인 대학생들은 이를 잘 모르거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대뿐만 아니라 연세대, 강남대 등 비교적 장애인 교육 환경이 나은 학교 대부분이 교육 환경 조사목록에 따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장애인 대학생들의 필요와 법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 교육 환경이 전무한 학교에서 보다 좀 더 나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 대학생들이 차별도 인식이나 불만도가 높았으며 특히 '장애인 교육 환경에 대한 전문성<sup>28)</sup>'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27) 과두제의 철칙 "현대 사회의 모든 조직이 복잡해지고 관료화되면서 최고 지도층과 조직의 엘리트 집단에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조직에 과두제가 자리잡게 되면 그 체제는 권력 강화를 1차 목표로 삼게 되며, 이 목표가 국민적 목표와 상충될 때, 엘리트 집단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적 요구를 희생시키는 쪽을 택하게 된다. 결국, 과두 정치 체제가 자리잡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면 민주주의는 위협에 빠지게 된다."(로베르트 미헬스)

28) 장애 전문가, 재활의학 전문가, 각 영역별 전문가 등의 스텝진을 주축으로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Disabled Students' Program : DSP)을 개발한 UC at Berkeley는 1962년 이래 UC at Berkeley에 등록된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지체부자유자, 뇌성마비뿐만 아니라 학습장애, 만성적 통증이나 AIDS, 정신장애나 만성적 피로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시스템 및 기타 장애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O'Hara, 1993).



<표 V-7> 이미 마련된 장애인 교육 환경과 편의시설에 대한 평가 지표 (%)

학교가 마련한 물리적 편의시설은 기준에 맞지 않거나 주먹구구식의 보여주기식 설치에 머물러 이용하지 않는다.	(19.36)
할 수 없이 이용하긴 하지만 오히려 다치거나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	(9.45)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학습기자재나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도움이 되지 않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6.75)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학습기자재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11.26)
수화 통역사나 점역 도우미와 같은 인적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만 자원봉사로 되어있어 책임성이나 전문성이 약하다.	(4.95)
장애인 주차장은 마련되어 있으나 기준에 맞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5.85)
장애인 주차장은 마련되어 있으나 비장애인들이 무단 이용해 어려움이 많다.	(10.81)
시각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낮아 수강거부나 수업참여에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 0 )
청각 장애인을 위한 팩스 지원이나 정보 접근 시스템은 거의 없어 차별 받은 적이 있다.	(3.60)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등 학내 이동 수단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	(4.50)
점자 블록이나 과속 방지턱 등이 없어 위험을 느낄 때가 많다.	(7.65)
학교가 장애인과 그 교육환경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15.76)

또한 아래 표에서처럼 설치기준에는 맞으나 그 학교 특성과 장애인 대학생 특성에 맞춘 설치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단연 많았다.

<표 V-8> 이미 마련된 학업 기자재, 물리적 교육 환경에 대한 장애인 대학생들의 이용도

설문 문항	%
장애인의 요구와 설치 기준에 합당	8.69
설치 기준에는 맞으나 장애인 요구 무시	28.98
설치 기준에는 맞으나 찾기가 어려워 이용하기 어렵다.	21.73
설치기준에도 맞지 않고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	24.63
설치 기준에도 맞지 않고 위험해 아예 이용하지 않는다.	13.04

이렇게 응답한 경우의 학교는 대구대나 우석대가 단연 높았는데 이는 대구대가 물리적으로 행정적인 교육 환경이나 서비스는 다른 학교보다 나은 편이나, 그런 정책이나 서비스가 다분히 권위적이고 장애 학생의 참여나 의사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학교가 장애인과 그 교육환경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15.76%)

이러한 교육 환경 중에서 물리적인 교육 환경의 경우에는 <표 V-8>에서 보듯이 설치해 놓고도 외면 당하거나 오히려 장애인 대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단순 설치율만을 보고하는 대학 종합 평가가 장애인 교육 환경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평가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9> 이미 마련된 인적·행정적인 교육 환경에 대한 장애인 대학생들의 이용도

문항	%
장애학우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어 많이 이용한다.	9.33
도움이 필요할 때 가끔씩 이용한다	13.33
잘 마련되어 있지만 별 필요성을 못 느껴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18.66
오히려 그런 제도가 차별이라고 생각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8.00
장애 학우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해 이용하지 않는다.	24.00

또한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표방하고 있는 인적, 행정적 서비스 역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책임성이 미약하여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장애인 대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장애인 교육 환경이 전무한 학교에서 보다 좀 더 나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 대학생들이 차별도 인식이나 불만도가 높았으며 특히 '장애인 교육 환경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표 V-7,8,9>에서 보여지듯이 이미 마련된 장애인 교육 환경과 편의시설에 대한 평가 지표나 이런 교육 환경의 이용도를 보면 장애인 특별전형 이후의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확대와 능력개발이라는 대학의 구호가 한낱 책임감 없는 구호로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대학생에 학교 당국의 보여주기 식의 시혜적인 접근은 오히려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의식과 문제의식을 고양시켰다.

이는 장애인 교육 환경 전반을 둘러싼 구성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과 학교 태도에 대하여 장애인 대학생 스스로 평가한 항목만 살펴보아도 장애인을 위해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학교들이 의외의 평가를 받았다.

아래의 표의 평가 변환지표에 따라 응해은 12개 학교를 그 학교 장애인대학생들이 평가하였는데 학교별 평가에서는 서강대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B 점수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6개 학교가 D 정도의 평가를 받았으며 A+를 4.5만점으로 D를 2.5, F를 0점으로 점수화하면 강남대가 2.00으로 최하위를 서강대가 4.28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표 VII-1> 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태도 평가 기준 변환 지표

평가 기준 변환 지표
A+ 어떠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은 적이 없다. (4.5)
A 현실적으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은 적이 있지만 문제될 것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4.0)
B 차별이나 소외를 받은 적이 있지만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3.5)
C 차별이나 소외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개선되고 있다. (3.0)
D 차별이나 소외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2.5)
F 차별이나 소외가 심각하며 관련법이나 학칙 등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0)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교육 환경에 대한 학교의 단순 투자액수보다 투자 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이는 서강대의 학교 평가 평점을 보더라도 서강대의 전체 편의시설 설치율이나 서비스는 대구대나 우석대보다 떨어졌지만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도 학교의 장애인 학생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구성원들 중에서는 특히 교직원들이 장애인대학생에 대한 의식이 떨어져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특히 장애인 대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인적, 행정적 자원에 많이 의존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장애인 대학생들의 대학 진학 목적 중에서도 이런 학교 사회 구성원과의 대인 관계 형성이 8순위로 꼽힐 만큼 중요했다.(2001.김헬레나)

김헬레나(2001) 논문에서도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묻는 설문 문항에서는 '타과 친구들을 사귄 기회가 적다', '교수나 조교와의 교류가 어렵다', '선·후배들과 교류할 기회가 적다', '학과 내에 어울리는 친구가 없다'의 순으로 어려움이 나타났다.

장애인대학생들이 교수나 조교와 교류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는 '교수나 조교의 장애에 대한 지식부재' (1순위), '교수와 조교의 권위적인 태도' (2순위), '만남의 기회 부족' (3순위) 등을 꼽았다. 장애학생과 교수 및 조교와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장애학생 전담교수나 전담조교를 둔다'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학기가 시작하기 전 담당교수나 조교를 교육시킨다'가 2순위, '장애학생과 교수와의 정기적인 면담을 실시한다'가 3순위로 선정되었다.(2001 김헬레나)

29) 시험을 너무 못쳐 교수님과 면담하는 중에 그 교수님은 저에게 급기야는 이렇게 묻더군요. "자네. 이 학교에 들어올 때 수능 몇 점 말고 들어왔나? 100점? 190점?(400점이 만점일 때)" 네. 바로 그것입니다. 교수님이 저에게 묻고 싶었던 것은 아니 하고 싶었던 말씀은 특례로 들어왔으니 그렇지 뭐 하는 의도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왈르 무너지는 저의 자존심을 느껴야 했고, 눈물마저 나더군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은 사정사정해도 한문 시험을 보라고 해서 저는 백지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차라리 웃음마저 나옵니다  
(공주대 시각장애인 대학생 증언)



<표 VII-2> 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태도 점수 ( 표VII-1 참조)

	비장애인학생	교수·강사·조교	교직원	학교 투자·태도	평균
강남대	2.5	3.0	2.5	0	2.00
건국대	3.16	3.16	1.8	0.8	2.23
고려대	3.25	3.37	3.25	0.62	2.62
공주대	3.31	3.0	2.5	1.0	2.45
단국대	3.5	3.25	2	0.62	2.34
대구대	3.57	3.32	3.22	3.05	3.29
동국대	3.72	3.5	3.05	1.8	3.01
서강대	4.5	4.16	4.16	4.33	4.28
연세대	3.5	3.58	4.25	2.83	3.54
우석대	3.35	3.42	2.28	3.14	3.04
이화여대	3.75	3.75	3.43	3.25	3.54
전주대	3.0	2.55	3.05	2.05	2.66
평 균	3.51	3.27	3.16	2.29	2.91

#### 4. 맺음말 및 정책 대안

##### 1) 문제 의식

장애인이 일찍부터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가졌으면 장애인 특별전형이란 제도는 있을 필요가 없다. 또한 95학년도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 이전에도 장애인 대학생은 존재해왔고 존재했어야 했다. 장애인이 한국의 국민이라면 또한 인간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그 동안의 기본, 의무 교육은 외면하고 오로지 대학에만 장애인 특별전형입학제도를 권장<sup>30)</sup>하여 국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선전' 하면서도 그것을 권장 사항으로만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책임은 장애인 학생 개개인과 그 가족 대학 당국에게 떠넘기고 있다.

지성의 요람이어야 할 대학은 장애인을 필요에 따라 입학<sup>31)</sup>시키고 책임에 따라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무슨 큰 특혜나 베푸는 것처럼 너스레나 떨고 있지 않은가?

현재 한국의 대학들에 있어서 장애인 특별 전형입학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이익을 얻고 더 나아가 경제적 수익도 얻는 '홍보'와 '재정 사업'의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2001 정영석)

그것은 지금 당장 장애인 대학 교육의 현실적인 토대가 열악하다고 급진적이고 전체적인 개선이 어렵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자기 능력껏 자아실현을 할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하고 수월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가까운 미래에 굳건히 약속되지 않는다면 단지 대학에서 장애인의 수가 늘어났다고 장애인의 교육 문제에 있어 '차별'이 완화되었다거나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다.

상식적으로 우리 사회와 대학은 장애인 대학생이 대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그 수준이 비장애인 대학생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 대학생 스스로는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 이러한 불이익과 어려움은 자신 개인이 감내하고 극복해야 할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대학 내에서 교육권을 비롯한 여타의 권리를 찾는 여러 활동들이 미비했다.

그나마 진행되어온 여러 가지 장애인 대학생의 권익옹호와 학업을 위한 서비스조차도 비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다른 계층의, 다른 차이의 대학생들보다 장애인 대학생들의 권리의식이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활동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실제적인 집행력을 갖지 못함을 전체 학교, 전체 장애

30) 여기에 대한 주장들은 1994년 8월 12일자 장애인복지신문 사설을 참조하라

31) 필요에 따른 장애인 입학의 개념은 picis 인터내셔널 뉴스 133호 미시건 대학의 법대 소송과 적극적인 차별조치 기사를 참조하라



인 대학생들을 볼 때 확인되어 왔다.

실사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 환경이나 교육권 문제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체와 실현이 부족하고 책임이 없는 비장애인들의 구호와 당위로만 그쳐왔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우리 사회와 대학은 장애인 대학생이란 존재를 무언가를 도와주어야 하고 배려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만 이해하는 것일까? 심지어 교수, 교직원까지도! (for The disabled)

여성들에게 여자 화장실이 꼭 필요한 것처럼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화장실이 꼭 필요한 것인데 왜 우리네 대학들은 그 '필요', 필수적인 것(necessity)을 왜 항상 사랑과 배려로 이야기할까?

왜 장애인 대학생 문제는 장애인 대학생들로부터 들을 수 없고 말해지지 않는 것일까?

(not of The disabled)

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들이 왜 장애인 대학생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시행되지 않는 것일까? (not by The disabled)

아울러 장애인의 교육권과 인권에 대해 말하는 소위 대학의 장애인 관련 활동 조직들은 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개선하거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관찰만 하고 분석에만 머무르는가?

(only about The disabled)

장애인 대학생들이 실제로 겪는 불이익과 고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로지 감내하고 개인의 노력으로만 상쇄시키려고 하는 것이 장애인 대학생 개개인의 인격적인, 성격적인 차이 때문인가? 아니면 일반화된 현상으로써 사회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한 것인가?

바로 장애인 차별도 인식도 조사는 바로 이러한 문제 설정 속에서 그 과학적 인과를 밝히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모든 사회 모순과 문제의 해결이 그러하듯 그 주체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의식화되고 조직되어 운동하였을 때 왜곡, 변질 등을 피해 본질적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대학생들이 '차별'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 원인과 결과 정도는 어떤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장애인 대학생의 그러한 의식 구조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지 밝히고자 노력했다.

## 2) 분석 결과

조사 대상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각 대학들의 장애인 교육 환경을 다루는 현실적인 태도나 철학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평가는 냉소를 넘어 피해의식 수준에 가깝다.

그것은 권위적이고 시혜적인 태도로 장애인 대학생들을 '대상화'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교육 환경이나 서비스는 자선적이고 잔여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장애인 대학생들의 대상화는 장애인 대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이 결정론적으로 열등함에도 '특혜'를 입어 대학에 입학했으며 이는 비장애인 학생들의 권리를 희생시킴으로써 가능했다는 인식을 지니게 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대학생들의 교육 환경이나 교육권 보장은 다른 비장애인 대학생의 교육권 침해할 것이라는 부담을 장애인 대학생들에게 안도록 하였다.

장애인 대학생들의 무임승차의 자기인식은 교육 환경의 불이익이나 고통 등을 감수하고 오로지 개인의 초인적인 성실로 대학 사회 내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차별과 억압의 자기 동일성 내지는 합의를 만들어 낸다. 이는 설문에 응했던 장애인 대학생들이 개별적인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확연히 체험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하거나 개념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

차별에 대한 동의는 장애인 대학생의 정체성으로 내면화되어 장애인 교육 환경 부재라는 대학의 불성실을 장애인 자신의 불성실로 투영하게 되어서 결국 장애인 대학생의 학업 수행과 교육의 책임을 단지 장애인 대학생의 개인의 노력으로만 환기시키면서 차별에 대한 인식을 무력화 시켜버렸다.

이는 '차별'에 대한 무력화는 결국 장애인 교육 환경 투자 회피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장애인 교육 환경이나 투자가 어떤 식으로든 높은 학교의 장애인 대학생들이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권리의식, 불만 등이 아주 높은 반면(대구대, 우석대, 공주대, 전주대 등) 장애인 대학생 교육 환경이 크게 열악하거나 전무하거나 장애인 특별전형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나는 차별 받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면서 설문 자체를 거부하거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항변했다. (서울대, 이화여대, 동국대, 고려대 등)

장애인 대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 환경은 학교로부터 학생 사회의 당당한 한 일원이자 주체로서 존중받고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문제 해결과 학업 수행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설, 행정 체계 등이었다.

그리고 그런 정책과 서비스들이 장애인 대학생들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참여를 거쳐 마련되어졌을 때 가장 유용하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서강대의 경우)

물리적인 편의시설의 경우에는 교육환경 조사나 설문에서 보여졌듯이 단순 설치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용도가 중요했으며 이러한 이용도 역시 장애인 대학생들의 직접 참여와 법적 최상기준 만족 등이 충족되었을 때 나온 편이었다.(연세대 등)

왜냐하면 학교마다 학교의 물리적 특성이 다르고 행정 시스템에 차이가 있으며 재학 중인 장애인들의 경향도 다르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의 장애인 학생들의 필요(need)<sup>32)</sup>도 다르다.

그래서 사실상 종종 장애인의 한해서는 건국대의 대안이 대구대의 대안일 수 없고 우석대의 대안이 전주대의 대안일 수 없다.

다만 행정적인 서비스 역시 각 학교의 개별성에 의한 민주적인 전달체계와 그에 따르는 전문성, 책임성 확보 등이 실제 장애인 대학생 교육 환경에는 중요한 관건이었다.

32) 필요를 이제까지 흔히 '욕구'로 번역되어 왔던 need를 지칭한다. 영미권에서 필요(need)는 필수적인 것(necessity)과 같은 의미관련 속에 있으며, 희망(want), 욕구(desire)는 임의적으로 '바라는 것'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독일 어에서는 필요와 욕구가 구분되지 않고 통칭하여 Beduerfnis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영미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need를 욕구로 번역해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아마도 필요가 가지는 사회적 성격보다는 각 개개인의 개별화된 욕구체계 속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왔던 우리나라의 사회사업, 사회복지계의 의도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민중복지연대 2001, 필요와 사회복지)



이와 함께 장애인 대학생들이 직접 부대끼는 교수, 교직원, 조교들의 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 중에서 교직원 등의 인식부족<sup>33)</sup>등이 어려운 문제로 꼽혔으며 학업 수행에 있어서도 장애인 학생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교수와 조교들의 '장애의 몰이해'였다.

장애에 대한 몰이해란 뇌성마비나 시청각 장애인 대학생일 경우 특수한 장비나 장애의 특수성 때문에 정확하고 전문적인 이해와 책임이 뒤따르는데 바로 여기서 장애인 대학생의 '장애'를 이해하기를 거부하거나 소수라는 이유로 도외시하는 경우에 문제는 심각했다.

### 3) 정책 대안

분석 결과를 보면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차별의 철폐 -특히 1,2급 중증 장애인이 입학하고 공부한다는 가정 하에서- 를 위해서는 장애인 학생의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가시적인 대안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VI -1> 장애인 대학생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 대안

정책 대안	장애인 담당 전문 부서 전문인력 배치	학업 기자재 지원		도우미 담당 조교제	장학금 유로 도우미활용을 위한 제정지원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과 인식 개선
		물리적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휴게실등 공간 마련	학칙제정 행정지원			
%	18.29	23.17	9.75	6.09	10.97	21.95

여기서 물리적인 편의시설과 학습 기자재 공급 등은 기본적인 사항 등의 요구가 1위였고, 학교 구성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2위로 나타나 장애인 학생들의 평가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는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2000, 8 김헬레나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에서도 장애학생들이 정당한 대학생생활을 위해서 대학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물리적 편의시설의 증진'과 '학업에 필요한 기자재 마련'을 들었으며, '장애학생 지원기구 및 전담 부서 설치'는 3순위, '학내 완벽한 휴게시설의 구비'는 4순위, '학내 생활지원을 위한 도우미 인력 수급'은 5순위<sup>34)</sup>로 나타나 장애인 대학생의 '정책적 필요'가 나름대로 일관성을 띄었다.

33) 서강대는 중증 장애인이 입학할 경우 교직원들이 도우미를 조직해서 신변처리나 이동을 도와주기로 결의가 되어 있다. 학생 평가에서 서강대가 높은 평점을 받은 요인 중에서 교직원의 인식이 주되게 작용했다.

34) 이외에 '장학금 및 보조금 지원'은 6순위, '장애학생을 위한 기숙사 규정 수정'은 7순위, '취업 및 진로지도의 확충'은 8순위로 나타났다.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2000, 8 김헬레나 교육학 석사학위 p.76

도우미 활용 부문에서의 재정지원은 고용과 책임 관계가 확실한 유료 도우미제도를 하는데 이러한 모든 항목들은 장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생활을 위해 대학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원서비스이지만 한정적인 재정문제 등을 고려, 위의 결과와 같은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장애학생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서비스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정책 관련 설문에서 가장 시급한 것에 우선 순위를 따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장애인 대학생의 권리의식 증진과 차별 철폐를 위한 구체적 대안은 아래와 같다.

1) 장애인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과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 마련과 학업 수행 활동, 학교 사회 생활이 가능하게 할 행정적인, 인적 서비스 및 학습 기자재 마련.

2) 교수, 교직원 비장애 학생과 같은 학교 구성원의 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인식 제고 프로그램 실시(예: 장애 학생 지도 지침서 발간, 장애학생 도움 가이드 북 마련)

3) 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성 제고, 전문인력 공급과 전문 기관 설립(예: 장애 학생 담당 교수, 조교, 담당 교직원, 장애 학생 지원 센터 설립 등)

4) 장애인 대학생의 정책 그리고 서비스 마련을 위한( of The disabled ) 장애인 대학생들의 민주적이고 직접적인 참여와 자치 보장<sup>35)</sup>, 아울러 장애인 대학생 관련 현황에 정확한 조사와 통계 자료 확보( 입학생, 재학생, 졸업생, 휴·자퇴생, 취업률 등)

5) 위의 정책의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한 국가 기관, 지역 사회, 대학교가 연계하는 장애인 대학생 고등 교육 지원 체계 형성(그림-I 참조)<sup>36)</sup>

35) 2000년 김헬레나 논문에 장애학생 지원기구 부분에서도 는 '학교가 재정적 지원만 제공 해주는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당국 중심의 지원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5.0%, '지원센터와 학생자치조직의 중간적인 성격을 띤 기구'가 20.0%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학생 지원기구가 자치조직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많은 학생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장애학생 지원기구는 학교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 장애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아직 장애학생 지원기구가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초기단계임을 고려, 학교나 정부는 이 기구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이에 장애학생의 참여가 부분적으로 보완되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36) 장애학생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는 장애학생 전담부서를, 지역 차원에서는 각 지역별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컨소시엄을, 대학 차원에서는 장애학생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장애학생 전담부서는 지역별 장애학생 고등교육 컨소시엄이나 학교 내 장애학생 전담기관의 운영을 지원해주며 시설·설비를 위해 요구되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장애학생을 위해 운영될 고등교육 지원체계는 크게 정부차원과 지역차원 그리고 대학차원에서 구축될 수 있다.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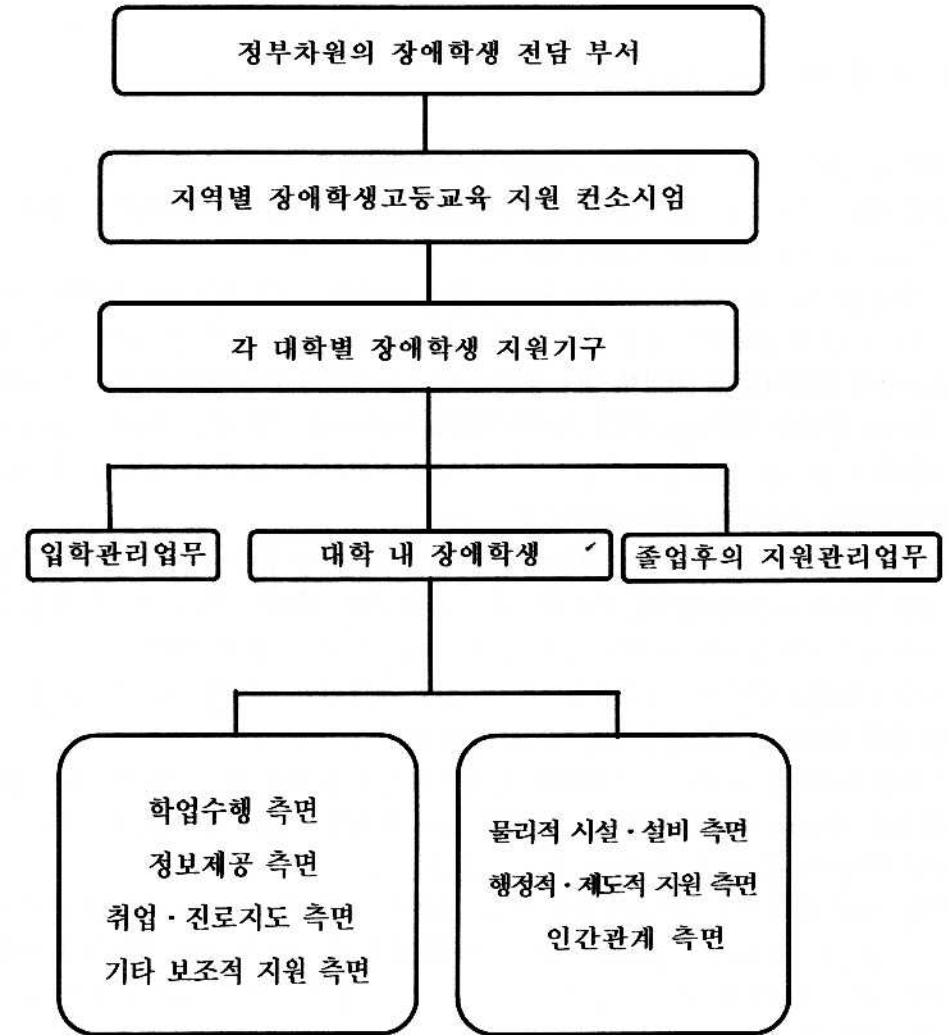


6) 장애인 대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의 현실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예산 배정  
(편의증진법의 대학교 관련 조항 신설, 고등 교육법에 장애인 대학생 관련 지원 사항 신설)

7) 장애인 대학 교육 환경과 입학 정보의 상담 기구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대학교 편의 시설 지도 및 사이트 구축, 장애인 특별전형에 대한 1:1 정보전달 서비스)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애학생 지원체계로는 그간 여러 부서별로 나뉘어 운영되던 장애학생 지원체계의 단점을 최대한으로 보완하여 하나의 '통합된 장애학생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한다. 그 동안 정부차원의 장애학생 지원체계는 여러 부서별로 나뉘어 운영됨으로써 그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장애학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통합된 장애학생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 부서 내에 장애학생에 대한 고등교육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하위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2000 김헬레나)

<그림-1>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 모형<sup>37)</sup>



37) 여기에 대해 자세한 것은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2000, 8 김헬레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참조하라



## II.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 교육환경 조사 결과 및 분석

### 1. 조사 배경 및 연구 목적

1995년, 많은 논란 끝에 장애인 특별전형이 실시되었다.

당장 대학 내의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조차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의 논란은 그 논의의 옳고 그름을 떠나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던 중 1년 뒤 95년도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했던 6개 대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한 「장애인특례입학실시 대상 대학교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가 그 해 4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발표되었다. 비장애 대학생들과 장애인 대학생들이 함께 조사하고 발표한 이 보고서는 당시에 초안이 작성되어 있던 편의증진법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이 조사되었다.

이후에 97년 3월 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관련법률>이 제정되었고 장애인특별전형을 시작한지 올해로 7년이 되었다.

그 동안에도 대학에서의 입학거부는 끊임없이 일어났고 많은 장애인 대학생들이 - 특히 중증의 장애인들과 시청각 장애인 대학생들이 - 교육 환경 미비로 학교 내에서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자퇴를 하거나 휴학 심지어 자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마침내 2001년 3월에는 승실대에 다니고 있던 장애여성 박지주씨가 학교를 상대로 학습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내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사회적인 유행이라고 할만큼 장애인 대학생 문제가 회자되었지만 정작 한국의 대학 특성에 맞춘 한국의 장애인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이 무엇인지, 행정 시스템은 무엇인지, 편의 시설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는 극히 미약하다.

특히 지난 1997년에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공공성이 뛰어난 공간 가운데 하나인 대학의 장애인 교육환경 통계 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것은 대학 당국은 물론 교육부도 얼마나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환경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한가를 반증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편의연대는 무장애대학교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전국의 대학 가운데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표본을 뽑아 지역적인 안배를 통해 산출된 학교와 조사 신청이 들어온 학교 등 총 19개 학교에 대한 장애인 교육 환경 전수 조사를 펼쳤다.

편의연대는 단순히 이 무장애대학 만들기가 장애인을 위한(only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활동이 아니라 장애인 대학생들과 비장애인 대학생들이 자신의 대학교의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며(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나아가 책임있게 해결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by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계획하였다.

### 2. 조사 및 분석의 원칙

따라서 이 조사와 분석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하였다.

1) 기술론적이고 미시적인 접근을 벗어나 장애인 대학생의 직접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2) 편의증진법의 기준에 따라 조사하되 가장 중증의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학업 수행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기준으로 특히 시·청각 장애인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다.

3) 이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나 97년 이후로 장애인 대학생 입학자 수가 급격히 주는 이유와 장애인 특별전형의 원래의 목적인 중증장애인 입학기회 확대라는 원칙에 충실한가를 꼼꼼히 조사한다.

4) 장애인 대학생의 대학사회 통합이 최우선 목표이므로 단순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편의시설이 아니라 행정체계 인적시스템과 같은 전체 장애학생지원 시스템(총체적 연계성) 속에서 편의시설을 평가한다.

5) 편의연대 중심의 중앙 하달 방식이 아니라 단위 캠퍼스의 장애인 대학생들을 조직하고 비장애인 대학생들을 교육하여 단위 캠퍼스의 개별성, 특수성, 전문성을 살린다.

6) 각 대학의 현재의 편의시설 자원과 시스템을 최대한 파악하여 활용도를 모색한다.

자료 분석은 수집 자료를 Window용 한글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통계 프로그램 10.0 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용한 통계적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별 편의시설 설치 기준합치 불합치, 시스템 종류에 따라 학교별 빈도 분석을 실시했고 각 학교별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조사의 한계

1) 조사 분량과 방향이 광범위하여 통계자료가 참으로 방대함에도 조사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여 통계자료를 명확하게 활용하지 못했고,

2) 조사자의 교육 정도가 불균등하거나 교육받은 학생이 다른 조사자를 다시 재교육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3) 조사 통계에 대한 상관 분석이나 특정 요소에 대한 가중치 연구가 부족했고,

4) 조사 완료 이후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하지 못했다.

이에 이 조사 자료는 앞으로 장애인 대학생 교육권과 교육 환경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접근의 기본 기초 조사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다시 추후 보강 검토 작업이 이어지길 바란다.